朝鮮日報
夕刊 三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腫症仙藥 趙膏藥

獨佛間互相不可侵 共同宣言調印乎

리獨外相六日巴里를訪問

【巴里二日發同盟】리펜트롭프獨外相은 獨佛不可侵 共同宣言署名次 마츰내 오는六日 巴里를 訪問키로 된바 리펜트롭프外相은 六日 午後

巴里에 到着 二泊하고 八日午後 歸還할 豫定이다 獨佛共同宣言은 아마도 六日午後에 調印케될것이다 (寫眞上은 리獨外相 下는 봉佛外相)

【伯林二日發同盟】리펜트롭프獨外相은 佛國의 勞働爭議不穩으로 巴里訪問을 延期하고잇든바 總罷業도 調停되엇스므로 來六日 伯林을 出發하야 訪佛에 登程키로 決定하엿다 리펜트롭外相은 巴里에 到着한다음 봉네佛外相과의 間에 獨佛兩國間國境不可侵을 骨子로하는 獨佛共同宣言에 署名할 豫定이라한다

勞資抗爭激化로 佛內閣前途多難

【巴里二日發同盟】勞働總同盟이 指導하는 反政府罷業은, 政府側의 斷乎한 抑壓策이 奏效하야 失敗에 歸한바 政府의 强硬態度에 得勢한 資本家는 罷業參加者를 繼續解職하는 同時에 工場閉鎖를 斷行하는等 依然攻勢를 取하고잇다 即 三飛行工場이 二萬人의 罷業勞働者의 大量解雇를 斷行한 後 아직도 工場을 閉鎖하고잇는것을 爲始 말세이유 金屬工場에서도 一萬人을 解雇하는等 全國各地의 勞資對立은 激化하야 政府의 所期할 生産增進은 反對의 現象을 全國的으로 出現하게되엿다 호말레勞働相은 二日달라디에首相과 會見하고 對策을 協議한바 二日夜中에 勞資協調 擧國一致 社會不安除去를 要望하는 旨의 聲明을 發表할것으로 觀測된다 다시 호말레勞働相은 罷業參加官吏의 處罰을 輕減하도록 首相에 進言한 模樣이다 敎員 遞信官吏로서 懲戒處分을 바든者 約一千人 公共事業關係에서는 被告發者多數를 出하야 모두가 最高五千法의 罰金 二年까지의 懲役에 處하여질것을 想像된다 如斯한 情勢下에 議會再開를 압두고 右翼中央派와 急進社會黨과의 大同團結을 圖謀하려는 달라디에首相의 企圖도 容易하지 못하야 政府의 前途는 아직도 多難한듯하다

倫敦海軍條約에 伊政府加入決定

手續完了코覺書에調印

【倫敦二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去月十六日發効한 英伊協定의規定에基하야 一九三六年 倫敦海軍條約에 加入하기로되여 一切의手續을 終了하엿스므로 그란디駐英伊太利大使는 二日午後零時五十分 本國政府의 訓令에基하야 英國外務省을訪問하고 몬타기-스코트兩次官補와의間에 倫敦海軍條約加入에關한 覺書調印을 終了하엿다 그結果伊太利는 同條約의 實的制限及 建艦通報의義務를 負하기로되엿다 英國政府는 다시 同樣의 條項에 基하야 獨逸蘇聯兩國及 스칸디네비아 諸國과의間에도 協定을 締結할 豫定이다

이든前英外相 來三十日渡米

【華盛頓二日發同盟】英國前外相이든氏는 今年二月 伊太利問題에 關하야 체임벌린首相과 意見을달리하고 辭職한以來 專혀 野人으로서 체임벌린外交의 批判役을 擔當하고잇든바 今回米國을 訪問하기로 決定하엿다 二日웰스國務長官代理의 말한바에依하면 이든氏는 來十二日 華盛頓에 到着 二日間 滯在하면서 루즈벨트大統領을爲始 웰스長官代理其他政府要人과會見 또

白耳義藏相辭職

【브랏셀二日發同盟】白耳義藏相 막스제라-르氏는 西班牙人民戰線政府와의 國交斷絶에 이르런 쓰파-크首相의 外交方針에 反對하고 一日辭職하엿다 제라-르藏相은 自由黨에 屬하는바 그 財政金融政策은 最近 社會黨攻擊의目的이되여잇섯다

波蘇通商交涉 開始決定

【와르소二日發同盟】波蘭外務省은 來週中에 蘇聯、波蘭通商交涉을 開催하기로 決定한旨를 二日發表하엿다 波蘭蘇聯兩國은 過般相互親善確認에 關한共同콤뮤니케를 發表한以來 急角度의 接近을 示하고잇는바 通商交涉의 前途는 注目되고잇다

肅淸工作의副產物 蘇聯의懊惱深刻

當地에 達한 確實한 情報에 依하면 蘇聯肅淸工作의 連續的强行은 各方面에 特殊한傾向과 現象을 現出하고잇는바 最近은 如左한 肅淸工作副產物이 發生되엿다

一、從來는 技術方面學校는 入學志願者가 定員의 數倍以上에 達하든바 肅淸工作이 技術方面에도 미치게된 以後는 激減되여 最近에는 定員에 차지못한다 이에 反하야 文學方面志願者가 增加되고잇다

二、最近醫學界에서는 心臟病者의 激增을 指摘하고 그 原因에 對하야 多數의民衆이 肅正에 對한 脅威로부터 恒常心悸를 亢進하고잇는것이 指摘되고잇다 이가튼우수운 挿話裡面에 蘇聯의肅淸工作의 無理와 悲劇的結果를 如實히 나타내고잇다

日支國交根本策 十日前後에發表

【東京電話同盟】三十日 御前會議에서 決定된 東亞新秩序建設에 關한 日支兩國國交調整 根本方針은 適當한時期에 政府로부터 中外에發表키로된바 그時期는 手續其他事情으로 豫定보다 느저 十日前後로 될모양이다

勞務者爭奪防止及 船員養成具體案完成

【東京電話同盟】國家總動員法第六條에依한 勞務者爭奪防止 同第二十一條에依한 國民登錄及 同第二十二條에依한 船舶技能者養成設動에對하야는 앞서 厚生省遞信省에서 그具體案을 起草中이든바 成案을어덧스므로 來五日午前十時부터 首相官邸에서第三次國家總動員審議會를開催 右에對한 具體案을 附議키로되엿다 그리고右具體案骨子는如左하다

▲勞務者爭奪防止
一、厚生大臣이 指定한 事業主는 國民登錄票를 所持치안는 勞務者를 雇入함을 不得함
一、離職한後 一定期間을 經過하지안흔 勞務者를 雇入할境遇는 職業紹介所의 許可를要함
一、事業主는 解約解雇의 契約이 잇슬때까지 勞務者의 登錄票를 保管할 義務를負함

▲國民登錄
一、厚生大臣의 指定한 機械、器具、金屬化學、鑛山交通運輸諸工業을爲始 百三十六種의 職業에從事하는十六歲以上五十歲未滿勞務者及 工業學校卒業者를登錄함

▲船員登錄
右國民登錄의 例外로서 船員을登錄함

▲船員의養成
遞信大臣의 指定하는 船舶業者에對하야 船舶技能者의 養成을 命할수잇슴

佛伊關係又復惡化

伊、佛領返還要求로 佛政府側嚴重抗議

【羅馬二日發同盟】佛國政府는 去三十日 伊下院에서 챠노外相이 植民地問題에言及하야 『伊太利國民의 當然한要求』라고 述한時 多數의議員이 이에呼應하야 『튜니스』 『코르시카』를 絶叫한것은 佛領의 倂合을 要求한것이라고하야 事態를重大視하고잇는바 二日午後本國政府의 訓令에基하야 駐伊佛國大使퐁세氏는 外務省에 챠노外相을 訪問하고 同問題에 關하야 抗議的意見을 述하엿다

一方 가이다氏의 社說은 伊太利政府의 對佛强硬態度를 表明한것이라하야 注目되고잇는바 一部에서는 伊太利는 不遠한 將來에 再開될 佛國、伊太利交涉의 劈頭 佛國에對하야 伊太利人이 八、九割까지 居住하는 舊伊太利領코르시가島及 阿弗利加 튜니스地方의 合理的 返還을要求할것이라고도 傳한다 果然이것이如何한 形式으로 實現할는지는 勿論 豫斷키困難하나 가이다氏의 社說을通하야 表明된伊太利政府의强硬態度는 적어도 同問題에 關하야 伊太利가 一步前進한것이라하야 注目되는바이다

駐英伊大使 英國側支援要求

【倫敦二日發同盟】챠노伊太利外相의 外交演說을 繞하야 佛伊關係는 又復逆轉의形勢에 잇는바 그란디駐英大使는 二日正午 英國外務省을訪問、佛領튜니스返還問題에 關한伊太利與論의 動向에 對한佛國政府의 强硬態度를 傳達하는同時 地中海安定은 歐洲政局의 重大問題이라고 述하야 英國政府의 全的支持를 要求하엿다

伊外相演說과 羅馬外交界의觀測

【羅馬二日發同盟】羅馬外交界의 觀測에依하면 二日 쥴나-레 데·이탈리아紙에 發表된 가이다氏의 社說은 去三十日챠노外相의演說에表示된 伊太利態度를 一層明確히한것으로 歐洲의 新秩序建設에邁進할 伊太利政府의 自信에充滿한 新政策을 示唆한것이라하야 注目된다 그리고伊太利가獨逸과 步調를 마추어行하고잇는 猶太人追放에依한 民族純潔保持의 方針은 新秩序建設政策의 根幹을 形成하는것으로 伊太利民族의 結合에依한 大伊太利主義의 實行化는 一九三九年에잇서서 伊太利政府가 渾身의力을 다할 新政策일것이라고 關係方

伊、進軍準備完成 對佛進軍도可能

伊紙對佛强硬態度示唆

【羅馬二日發同盟】챠노外相의外交演說에 關聯하야 佛伊關係는 又復 惡化의徵兆를 示하고잇는바 쥴나-레·이타리아紙 主筆 가이다氏는 二日의紙上에 챠노外相의 演說主旨를 再次强調하고 伊太利政府의 對佛强硬態度를 示唆하야 左와如히 述하고잇다

단紙를爲始 佛國各新聞은 챠노外相의 演說에 述한 伊太利의 動員及動員計畫에 對하야 새삼스럽게 驚愕하엿다고 述하고잇는바 이는 獨伊樞軸上에 잇는 伊太利의 現狀에 對하야 認識不足을 暴露한것에不過한다 伊太利의 政治的結合、國民精神의 緊張은 只今 그最頂點에 達하고잇다 췌코事件에 關하야 伊太利는 何時던지 總動員의 可能性이잇는것이 立證되엇다 파시스트天下가 된以來 十六年 伊太利는 決코 無意味하게 經過하지안햇다 今日의 伊太利는 완전히 軍備를 完成시키기爲하야 必要한 政策을 實行할 實力이 잇다 伊太利國民은 一團이되어서 모든事態에 對한 萬全의準備를 整備하고잇다 이 未曾有의 準備도 完成되엇스므로 萬若必要하다면 佛國을 敵으로하야 進軍할 可能性도 잇다

波、체國境確定 議定書에調印

【와르소二日發同盟】波蘭 췌코兩國政府는 過般來波蘭 췌코新國境確定問題交涉을 續行한바 一日와르소에서 新國境確定에 關한 議定書에 調印을完了 二日此旨 正式發表하엿다

英砲艦乘組員八名 殊勳章授與

【倫敦二日發同盟】英國皇帝 조지六世는 昨年十二月十二日 蕪湖及 南京方面에서 日本機의爆擊을바든 英國砲艦 레디바-드·크리켓트兩艦 乘組員의 沈着 果敢한 行動을 嘉賞하고 레디바드號艦長 바로大尉 同乘組員 오다넬中佐 크리켓트號艦長 아슈리大尉以下 八名에게 殊勳章을 授與하기로하시고 二日의官報로써 그旨를 發表하엿다

新軍需路線遮斷次 三角洲(廣東南方)大敵蕩掃

湖北省通山附近敵二千殲滅

【佛山에서一日同盟特派員發】南支派遣軍에서는 一日薄暮로부터 潭州水道南方을 渡河 廣東南方三角洲地區의 掃蕩을 開始하엿다 即軍은 殘敵廣東을 占領함과同時에 蔣軍閥의 武器彈藥等軍需品重要輸送路인 廣九鐵道及廣東 三水間諸水道의 要點을 掘守한바 이때문에 支那側은 殘餘의 策으로서 西江下流로부터 高明附近에서 肇慶方面에 新通路를 求하고 여기서부터 盛히 軍需品을 輸送하고잇다 그우에 廣東南方三角洲地帶에는 尙今 優勢한 敵軍이 存在하므로 이를 殲滅하야써 敵輸送路를 拔本塞源的으로 遮斷하기爲하야 今回의 大掃蕩이 開始된것이다

【上海二日發同盟】武漢一帶로부터 追擊된 敵大部隊는 奧地에의 逃避路를 失하고 附近에 蠢動하고잇는데 一日午後三時頃에는 湖北省東南隅通山附近에 迫擊砲를 가진 殘敵 約二千이 來襲하여왓스므로 我軍은 巧妙한 機動戰에 依하야 그 背後를 急襲 敵에 殲滅的 打擊을 주엇다 敵의遺棄死體七百 또漢口西北方京山方面에서도 同日午前十時頃 迫擊砲를가진 敵約一千이 來襲하엿스나 我軍은 勇敢하게 이를攻擊하야 即時敵을 西北方으로潰走시켯다

004202

陳介의新任人事가 獨政府忌諱에抵觸

信任狀捧呈이延期된理由

【伯林二日發同盟】新駐獨大使陳介의 信任狀捧呈式은 再三延期한後 去十一月二十一日「베르히테쓰가덴」에서 擧行되어던것이 又復事前에 이르러突然中止하게되엇스므로國民政府는 一日의 行政院會議에서 强硬態度를 決定하엿다고 傳한다 伯林의 信賴할만한 情報에依하면 獨逸側이 突然信任式을 延期한理由는 陳介가 捧呈式場에서 述할豫定이엿든 挨拶의 總結에 對한新任人事中支那事變에 關한內容이 獨逸政府의 忌諱에 抵觸한때문으로 陳介가 右事項의 內容을 變更或은 緩和한다면 히틀러總統은 適當한機會에 陳介信任狀을 受理하게될것이라고 觀測된다

時事解說

漁業條約과 蘇聯內情

日蘇漁業條約修正協定의 正式調印에關한 外交折衝은 方今 莫斯科에서 東鄕大使와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間에 進行되고잇는데 리트비노프委員은 어떤問題는 蘇聯最高委員會에서 研究中이므로 여기게서 結論을 엇기前에는 아무런 對答을 할수업다고 하야 態度決定을 回避하고잇스며 또이條約成否의「바로메터」라고할수잇는 工業漁區 四十四個所에 對한 特定協定도 十二月一日로 期限滿了됨에 不拘하고 여기에 對하야는 그延長與否가 아직 未知數로되여잇다。

◇ 이漁業條約은 所謂의 正常한 手續에 不拘하고 蘇聯은 어떠튼 誠意를 缺하야 오든터인데 再昨年五月二十七日로써 條約의 期限이 滿了됨에 미처 修正協定交涉이 順調로 進行되여 오다가 十一月에 日獨防共協定이 成立되자 蘇聯의 態度가 一變하야 以來 新定協定으로 今日에 일운것이다 그런데 今年에 와서는 張鼓峯事件이 잇슨後리 蘇聯의 態度가 더욱 注目되여 오든바 이問題가 이와가티 遷延되는 裏面에는 蘇聯의 內情이 또한 그러치아니치 못한 形便에잇는것가튼點이 看取되는데 그것은 所謂 極東關係官僚의 肅淸問題다 即 一人의權限으로는 이問題의 處斷이 매우어렵게되여잇는 것이 今日 蘇聯의 內情이다 그러므로 리트비노프委員은 「이問題는 目下 外交委員會에서 審議中이다」라고하야 自己의態度決定을 避하고잇다。

◇ 勿論 日本에 對한全體的空氣가 問題의方向을 支配하는것이겟지만 內部에는 이와가티 國內事情인 肅淸事件이 또한 적지안케 作用되고잇다는事實도 看過치못할 條件의하나라 할것이다 어떠튼 今月末로 期限滿了를 떠든 이問題의 解決은 보게되는 가장 時急을 要하는것이므로 그强硬對策이 要望되고잇다。

重慶政府抗議 獨政府侮辱的態度에

【香港二日發同盟】駐獨支那大使陳介의召還을 主張하고잇는 重慶政府外交部에서는 마침내 三日陳介에對하야 獨逸政府의侮辱的態度에 嚴重抗議하도록 訓電을發하엿다 右에關하야 獨逸政府가 如何한態度로 臨할것인가는 極히注目되는바 過般의軍事顧問撤退 트라우트만大使의召還 滿洲國正式承認以來 獨逸과蔣介石派의 外交關係는 益益惡化의一途를밟고잇는 陳介의召還實現은 벌서時間問題로보이는데 重慶政府外交部에서는 陳介를 다른地位에 轉任케하야 同問題를 裏面的으로 解決하려는意圖인듯하다

神社制度調查會 第四回委員會

【東京電話同盟】全國招魂社를護國神社로 名稱을 統一한 神社制度調查會 特別委員會는 二日午前九時半부터 內相官邸에서第四回 委員會를 開催하고 護國神社統合問題 其他에對하야 協議를進하엿는데 今後는 市町村單位로하야 護國神社의 設立을 許지안코 府縣單位만을 是認하기로 方針을決定하엿다 여기에 從來府縣單位의護國神社를 가지지아니한 十二縣에는 急速히 護國神社를 設立하야東京을除하고는 全國的으로 一縣一所의 護國神社가 設立되는것으로서 市町村單位의 것은 自然에 統合될터이다 그리고 調查會는 年內에 總會를 열어서 그一切를 正式으로 決定하기로되엿다

八面鋒

◇ 明年度一般豫算總額은 二十六億九千餘萬圓 軍事費豫算은 約五十億。
◇ 여기 朝鮮、台灣等 特別會計를 合치면 明年豫算도 그럭저럭 一百億。
◇ 現下의 日本經濟狀態로 百億쯤 四、五年 쳐서 別일은 업슬지나、
◇ 支那의 뒤에 다는 英米佛蘇等의 行動이 오래 繼續되는때는 귀찬치 안흘바도 아니야。
◇ 여기 政治家、軍事家、國民等의 堅忍持久의 協力이 必要。
◇ 蘇聯內 朝鮮人은 一時 中央亞細亞로 移住시켯다 다시 極東으로 옴긴다고。
◇ 그나라에 가면 그나라法에 服從함이 當然하나 너무 無定見하게 이리 저리 쏠리는것은 생각할 問題。
◇ 昨年中 結核死亡者 四萬名 좀더 朝鮮人에게 安住할 土地와 保護를 주라。
◇ 癩病者는 四十萬을 不下할 모양。
◇ 徹底한 退治策을 樹立함은 癩病에 지지안허。

日滿伊間航路 開設計畫內容

【東京電話同盟】日滿伊通商協定에 伴한 日滿伊間航路를 充實코저 遞信省에서는 日本郵船會社를受命會社로하고內地、北鮮、大連、伊太利 直通航路를 開設키로決定、이에必要한 航路補助十五萬圓을 明年度豫算에 計上하엿다 右日滿伊航路計畫內容은大體如左하다

一、受命會社 日本郵船
一、航路 內地、羅津、大連에서 土耳其、希臘、伊太利의 主要各港을 經由 제노아를終點으로함
一、航海回數 中型 五千噸級貨物船二隻으로써年八回配船
一、積荷 雜貨 滿洲國特產物
一、補助金 十五萬圓

御廚大佐逝去

【東京電話同盟】參謀本部 部員步兵大佐 御廚正幸氏는 今次事變勃發以來 中支軍幕僚로서 活躍、武漢作戰中 不幸히 病을어더 歸國途中 十一月二十九日 長崎에서 逝去하엿다

人事·集會

▲橫溝光暉氏(內閣情報部長)三日午後零時五十分 旅客機로 京城에到着後 午後四時二十五分 京城驛發列車로 咸興向發
▲二宮治重氏(鮮滿拓殖會社總裁) 滿洲駐在中 三日午後二時五十分『노조미』로歸任
▲澁澤善日子氏(鮮滿拓殖會社理事)同上

豫算內示會를 十年만에復活

十四日兩院에內示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十四日正午 衆議院各派代表、同夕刻貴族院各派代表를 各各首相官邸에 招待하고 豫算內示會를 열고 池田藏相으로부터 明年度一般會計豫算內容에 關하야 說明키로되엿는데 豫算內示會는 濱口內閣때 中止된것인데 池田藏相意向에依하야 널리 國民의 協力을 求하고저 十年만에 復活하기로된것이다

滿員배쓰列車에衝突 乘客廿餘名死傷

사진구경하고돌아오는길에 興南驛附近의大慘事

【咸興支社電話】 이일밤여덟시사십오분에함남흥남역(興南驛)부근인 흥남(興南)항정(港町)철도길목에서 신북청(新北靑)으로부터 함흥(咸興)으로 가던 임시화물 제팔천팔백팔 차와 함흥천기리(天機里)서떠나 유정리(柳亭里)로 가던 함흥택씨회사소유의 함남제일천사백사십오호 뻐쓰와 충돌되여 뻐쓰가 철도 선로안에 넘어지면서 승객 내지인이십일명중 두명은 즉사하고 이십일명은 중경상을 입엇스며 운전수와 차장도 만흔 상처를입엇다 부상자중 세명은 생명이위독하고 그밧게네명도중상이다 부상자는 흥남조선질소비료회사병원에수용하야 치료중이다 사고원인에대한 조사를보면 그뻐쓰는 원래정원이십육명인것을 이날 활동사진 구경갓다가 돌아가는 흥남사는 손님을 정원이상으로 갓득싯고 전기 철로길목에서 열차가오는데 불고하고 길목을건느려다가 열차에충돌된것이라하나 아직현장의 상황은 상세치안타 사망자는 소천화좌길(小田和佐吉)파 죽하삼장(竹下森藏)의두명이다

【咸興支局電話】 사고를일으킨 현장인 그철도길목은 감시원이 배치되여잇지안코 또 감시인의 배치도업는 극히 위험한 철도길목으로 흥남경찰서에서는 철도관계자를 엄중히 취조하는중인데 그실정은계속 조사중이다

急카브地點에서 列車、無燈으로突進

現場은派守도업는十字路

【興南에서特派員朱洛璜發電】 함남흥남(興南)항정(港町)철도길목에서 이일밤에 『뻐스』와 열차와 부디처서 『뻐스』승객 이십삼명의 사상자를낸 사고현장의 당시상황을 알어보면 이러하다 현장은 철도선로가 구버서 도는곳이며 철도길목을 지키는사람의집은 악편으로 모두볼수업시되여잇스며 『뻐스』운전수도 임시열차이기 때문에 그열차가오는것을 주의하지못하엿다 그리고 철도길목지키는 사람은 오후열시까지만 근무하는 터이므로 그사고가 낫슬때에는 벌서 문을닷고 잠이드러잇섯다 열차도 사고발생당시에 기관차압에 『헤드라이트』에 불이 켜잇지 안헛섯다한다

이중대사고가 발생하엿다는급보를밧고 철도국 원산철도사무소로부터 서무과장 운전계주임 사고계주임등이 흥남에와서 사고발생현장에서 전후사실을 조사중이며 함흥검사국에서는 지상(池上)검사가 삼일오후에 출장하야 현장검증을 하엿다 『뻐스』운전수가 중상을입어 병원에 누어잇스므로 자세한 사정은 조사하기어렵다한다

鴨江水電水豐洞 堰堤設計를決定

埋沒地域問題도協議

삼일오전아홉시부터 총독부제일회의실에서 압록강수력발전개발위원회(鴨綠江水電開發委員會)를열고 재무, 내무, 경무, 식산, 농림각관계국장, 평북도지사와 각관계관이 출석하고 압록강 수풍동(水豐洞)『땜』(堰堤)설계에관한 총독의 자문에대한 답신안의 일부를 결정하고 동수력발전개발에따르는 중요한문제특히 물에파무치는지역(埋沒地域)주민에대한 보상기타 대책을중심으로 신중한협의를 하엿다

검장못하는서름에白菜를竊取

근절도——이일오후여섯시경부내 하강통 삼번지의 오진일호 백명변(白明變)의집 대문아페 차이어둔 김장배추를 어떤자가 씨이다 자식들이 걸려서 훔쳣다는늘

廢物利用報國 會助成金案 七日府會에

지난시월칠일 추가예산안을심의하고저 소집한 경성부회는 경성폐물이용보국회(廢物利用報國會)에대한 조성금(助成金)입만삼천원 문제에걸려 결국유회되고마럿던바 오일오후두시부터 부회의실에서 다시부회를열고 추가예산안을 상정하기로 되엿다 그동안 부회부의장 대야사랑(大野史郎)씨의 흥원서거도 함께 예정이다

부회가 못나는것을 기둘리가든 날오후삼시부터는 제일교육부회 동세시반부터는 제이교육부회를 소집하야 추가예산안을 상정하기로 되엿는데 제이교육부회에서는 그동안 상업의원회의 판게학교시찰과 계산실행상 검열에대한보고와질문이 잇슬터이다

滿鐵駐在員 京城에常駐

만철(滿鐵)총국에서는 이번에 경성에주재원(駐在員)을 두고조선철도국과 사무연락을 하기로 되야 삼일부터 철도국안에 사무소를설치하엿다 주재원 만철총국부참사 이나웅이(伊奈雄二)씨이다

소마고가면少年 뻐쓰에치어即死

【咸南支局電話】 일일오후세시경 함남 신흥군 원평면상리(新興郡元平面上里) 장흥 신흥사는 소년이 ... 뻐스에 치어즉사하엿다 그뻐스는 지낫스나 날뛰가던 김장한보기운전수 ... 취조하는 정편도 얼마동안 옥가진 질조중이다

工事中落盤 人夫死亡

【永登浦支局電話】 이튿날오후네시경 부내남경성역(南京城驛) 지하도 공사를하고잇던 구야조(久野組)인부 정읍군 ... 평면마하리(井邑郡 ... 面 ... 里)... 되여 죽엇다고한다

젊은女子가自殺

삼일오전아홉시경 경성역발 대전(大田)으로가던 제일열차에 영등포(永登浦)역 ... 십팔세가량된 젊은녀자가 뛰어들어 자살하엿는데 저고리에 분홍치마를 입은 상당한가정의 여자인듯한데 일은 알수업다

放縱의가페女給 女兒를分娩絞殺

鍾路樂園莊便所에서掃除夫發見 厥女는興奮失神狀態

카페여급이 딸아이를나코는

조처럼도리가업서서 허리끈으로 갓난아이의목을 옭가서 죽인사건이잇다

이일오후세시경 경성부변소소제인부들이 시내관철정(貫鐵町)낙원장(樂園莊)이백여십이번지 카페의녀급 전용변소를 소제하다가 피가가득도 식지안흔 태반(胎盤)을발견하고 곳종로서에 계출하엿다 종로서에서는 즉시 사법주임이하 형사대가 낙원장으로 달려가서 삼층녀급합숙소를 검사한결과 그방벽장안에서 보자에 싼 갓난계집아이의 시체를 발견하고 그방에누어서 알코잇는 야촌궁자(野村宮子)(二三)를 조사한결과 시체로된아이는 그녀자가 나흔아이임이 판명되엿다 산부는 흥분하야 인사불성상태이므로 영락정(永樂町)일정목주정(酒井)병원에 입원시키고 영아시체는 경기도형사과에가저다가 해부에부친결과 사태(死胎)를한것이아니라 타살한것이 확실하므로 산부를 상당히 취조하엿더니 다음과가튼 놀라운사실이 드러낫다 즉 이일새벽네시경 십여명의 동료여급들이 잠든틈을타서 여아를해산하야 곳보자기로 목을졸라서살해한다음 벽장안에넛코 태반만을 변소에 버린것이다 (사진은 야촌궁자)

約婚男子두고 情郞의씨배이고苦悶中

發作的으로遂殺害

그여자는 하관(下關)서 소학교를 맛치고 어머니와함께 인천에 건너와서 인천고등여학교를 사년전에졸업하고 곳인천송옥(松屋)오복점 점원으로 드러가서어머니를 보양하고잇는사이에 상전(上田)모라는 점원과사랑하는사이가 되엿다 한편어머니는 정신병에걸녓스므로 치료비가궁하야 상경 지난해팔월부터영락정바론카페에 드러가서 여급노릇을하엿다 그러는가운데 작년시월 신궁경기때에 그카페에 놀너온 모은행군산(群山)지점원운동선수 촌상(村上)(二五)과 알게되여 금년이월에 동거를 맷고 아이를배엿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천에서공일마다 서울로차저와서 자기와의 구혼사랑을 속삭이는 상전에게 배안에드리잇는 딴 남자의 씨를 알으켜주지못하고 남모르게 고민하다가 그만 낙태를 시킬가하고 여러번시험하엿스나 그것도 뜻대로되지안코 꼬물꼬물 자라나는새생명은 어느덧 임삭이 되엿다 나허서 어떠케 할것이며 키운들 애인에게 무슨면목으로 사랑을 보일것인가 군산의 촌상에게 편지를 하엿스나 어느놈의씨인지 알수가잇느냐고 바정한 거절만왓슴으로 배속에서죽어 버리지못할게라면 낫커든곳죽이리라 결심하고 그날밤도 천연스럽게 『홀』에나가서 우슴을 팔엇스나 네시경에 그와가티 해산을하게 되엿다 낫다고 첫소리치는 생명! 입을 막고 목아지를 졸러서 때는 무엇이어떠케되엿든지 모르는톡 머리속에는 무서운과자정이엉키인 폭풍이 일어낫다고 취조하는 경관에게 눈물과함께 진술하엿다한다

色鉛筆

근래광산경기가 붓적오르면서 광산에서만쓰는 특수한말인『노다지』란말이 상당이 유행되고잇다▲원래 노다지라면 광맥을파들어가다가 누런금줄이그대로 나오는것을 이르는 말이라는것이 어떠한곳에도 노다지가낫다고 하는수가만타▲친구들끼리 놀다가 하러울 잡내다고 하는 노다지가 낫는것을 만나도 못하지안흔 조수가 생겻다는것을 노다지를 노다지란 말이 한다▲그러면 이노다지란 말이 대체어데서생겻느냐하면 영국사람이 평양북진에와서 금광을 하는데 조선인부를시켜서 파들어가다가 금줄이나면 이양인들이 노다지 노다지 했다는것에서비롯햇다는것이다▲이것을 다시생각컨데 노다지는『노·터취』라고하야 다치지말라는말이다 금줄이나오니 괭이질을하지말라는것이다▲그것이 인부의 입술거치어나와서오늘은 곳노다지라는말로되엿고 금줄의 노다지는 종로네거리에서 사람을치고도 수만조흐면 노다지라고 떠든다▲그래라! 노다지라는말의 본뜻은 무엇이건 금덩이에서만 노다지를팔게아니라 무엇에서나 노다지를부르라 그러고 귀한것이면 역시함부로 다치지는말라

竹添町턴넬工事 責任者에게警告

落盤事故等을다시는안내도록 西大門署의態度强硬

기보=이일오전두시반 부내죽첨정(竹添町)삼정목 경의선복선공사 『턴넬』돌본곳의천정 약이십평이 함락하엿스나 공속에서 일하던인부 조진봉(趙鎭奉)(三四)외다섯명이 오수조개구조되엿다함은 기보한바로 소관서대문서에서는 입부에서 시미돌바게안되는곳이 무너젓고 그곳은 현재 백미돌가량 기괴드러갓스며 청부업자남견조(楠見組)에서는 이부근공사에 인부어백여명을사용하고잇는 중대공사임에비추어 ... 이쪽 개지칭것을발견치못하엿고 아울러내부의 설비를완전으로 그가튼 사고가발생하엿슴으로 곳관계자를 불러다가 인부들의목숨이보장되도록엄중경고를하엿다

墨湖에飮水飢饉

【墨湖】 인구는 갑자기 증가되고 공동우물의개수는 늘지안허 해안 묵호항(墨湖港)은 발흥향 창항이래 공동시설의 발전속도가 급진적임은 세인이 주지하는바이니와 이에수응한 인구통계도 격증하고잇다 그러나 상수도의 불비로 공동우물이라고는 여전두버물 공동우물이라고는 꼿밧게업서 우물한개에평집여호씩머게되여 조석이 우물면은 부녀들의 수라장을이룰뿐더러 소수집조차 조치못한데다가 생전급수로 태반이 흙물을 먹게된다하며 게다가 겨울은 집에서는 제때방울지지못하고 생숫기를 기달리는 한심한 물기근에빠저 잇다는데 이가튼현상은 주민보건에 중대문제라하여 주민은고나 경비되기전에 우 ...

志願兵第二期生 二百四名合格發表

一期生出所同時에入所

육군지원병제일기생 이백이명은 오는칠일 졸업식을 마치고 오는십일에는 드디여 씩씩한병정으로 각군영에 입영을하게되엿는데 지원자 훈련소에서는벌서부터 그제이기생을 입소시키고저 조선군에서 편성된 전형위원에 위촉하야 지난달 이십사일부터 나흘동안 전형을 실시한결과 다음과가티 전조선각도에서 이백사명을 입소시키기로결정하엿다 육군병지원자 훈련소 제이기생도 채용에대하야 염원(鹽原)훈련소장은 다음과가티 그소감을 발표하엿다

지원자는 명확한 목적과 정신의 파악이 필요하다 지원병이되고저하는 그동기는장래 충량한 황국군인이 되겟다는데잇서야 할것인데 지원자중에는 훈련소에서 훈련을밧는것 그자체가 목적인것가티잘못생각하고잇는 혐의업지안흔것은 유감이다 훈련소에서는 이런지원자에게 의식과정신을 부어너허 훌륭한 인물로서육군에 보내는것이 임무이며 훈련소관제에도 뚜렷이 정해저잇는것과가티 지원병을 지원하는사람을 훈련시킨다는 그다 전형은 인물을 본위로한다 적어도 육군병을지원하는 사람이면 일본의 국체가 만국에뛰여난점 교육칙어중 제일중한대목과 황국신민의서사등은 척척대답할줄 알어야 한다 해서야 말이아니다

그리고 인물능이잇어지만상식도 상당히 향상하여 두도록해야겟다 가령『베르링』과 『로ー마』가 어느나라 수도인지 무한생각이 어디인지쯤은 아러야되겟다 그리고 지원자는 국어에의숙하도록 할 필요는 말할것도업다

今日發表된 第二期生徒

▲京畿道=金龍伊 李仁熙 李建壽 裴泰行 金敎文 閔丙浩 金慶植 裴興載、
▲忠淸南道=林興鎬 李在午 李享俊 崔秉斗 鄭夾海 李相淳 閔承林 尹基一
▲忠淸北道=裵貴龍 姜廷熙 李漢國 鄭有會 李鐘宰 金庚煥 李東雨 李鳳鳳 方煥球 趙佐衛 金元培 林炳昌 南鶴承 金[illegible] 鄭[illegible] 史梓熙 李豐雨 金[illegible]
▲全羅南道=韓炳五 羅吉彦 朴[illegible] 李[illegible] 徐奉順 李龍洙 朴榮[illegible] 金容仁 羅承[illegible] 申吉洙 姜有[illegible] 林北鎬 金洛濟 文成彩 李[illegible] 金學宰 蘇田元 安商祚 許[illegible] 金公[illegible] 朴甲洙 朴[illegible] 裴時鉉 宋在根 金成煥 朴[illegible] 金[illegible] 舜[illegible] 李俊[illegible] 羅[illegible] 林[illegible] 朱炳[illegible] 金[illegible] 朴井俊 姜英[illegible] 韓[illegible] 李[illegible] 金[illegible] 韓[illegible] 金相旭 程[illegible] 朴在[illegible] 金福[illegible] 朴[illegible] 朴仁洪 朴[illegible] 孫京鎬 羅鍾[illegible] 金[illegible] 金[illegible] 金炯坤 羅貞淳 李[illegible] 申丁得
▲全羅北道=朴容[illegible] 金[illegible] 孫四福 金[illegible] 河相[illegible] 金炯旭 李炳[illegible] 金大煥 郭[illegible] 金[illegible]
▲慶尙南道=朴水祐 黃[illegible] 金[illegible] 李在[illegible] 朴元水 金[illegible] 金[illegible] 洪 李洙用 朴[illegible] 李[illegible] 崔[illegible] 李[illegible] 鄭甲伊 鄭且洙
▲慶尙北道=南相[illegible] 金炳[illegible] 朴 李[illegible] 李相[illegible] 李孟和 [illegible]
▲黃海道=柳[illegible] 孫[illegible] 李[illegible] 金再[illegible] 吳喆俊 李錫[illegible] 皮榮[illegible] 金[illegible] 李[illegible] 金泳淳 崔昌[illegible] 呂[illegible] 林永[illegible] 金[illegible]
▲平安南道=徐基[illegible] 崔東[illegible] 李東[illegible] 金順[illegible] 洪
▲平安北道=金[illegible] 李永健 黃仁[illegible] 安[illegible] 李[illegible] 吳[illegible] 申
▲江原道=洪[illegible] 金龍權 任武 李永[illegible] 吳[illegible] 金和玉 宋
▲咸鏡南道=金寬淳 尤[illegible] 金[illegible] 李[illegible] 第三[illegible] 金[illegible] 李[illegible]
▲咸鏡北道=朴正[illegible] 李國[illegible] 李 五松 崔[illegible] 韓[illegible] 吳[illegible] 崔京善 金[illegible] 金洙[illegible]

各聯隊로直行

十日出所할第一期生 故鄕에도안들르고

육군지원병제일기생은 오는칠일 각연대에 입영하게되엿는데 이번은 처음임으로 특히 훈련소에서 직접입영시키기로되엿는데 소에서 지급하여 주기로되여 이입부과 도지사에게 이것을 통첩하엿다 ... 작년오월일부 부령으로 포한 중병려비 지급규칙 ... 대로 출발할려이라고한다 제이기생이후는 흥은 일단고향에다 녀온후에 입영시키게될지 모 ...

冬寒을이즌 昨今小春日和

그러나不日寒波來襲

금년겨울은 가끔 가다가 비가오는일이 만터니 작금 이삼일은 따뜻한날세가 계속하야 한나젠 봄날가튼느낌을 주고잇다 더욱 삼일아침의 경성지방기온은 영하이도이분으로 작년보다는 칠도오분이놉고 평년보다 삼도가량놉다 추위질때가튼면서도 따뜻한날세에 일반은 조키는하면서도 언제 또갑자기 추위질지몰라서 일종불안한마음도 가지게하는데 경성측후소에서는 다음과가티말한다

중지나의 고기압이 조선과내지로 퍼저잇서 날은 개이고 비교적 따뜻한편이다 지금북지방면에는 약한저기압이 여기 저기잇스며 몽고에 고기압이 생기지안허 이 상태간은 따뜻한 날세가 계속할것이다 그후는 북지의 저기압이남하하야 비나눈이 오겟고 이어서 추위가 닥처오게된다

年末年始週間 天徒敎徒動員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에서

運動機具配給爲해 學務局、基本調査着手

物資統制로運動具不足에對應 體育振興策으로考究

전시체제아래 물자통제와 사용제한 소비절약의 국책은 필연적으로 국민체력향상에 업서서는안될 운동용구에 막대한영향을주고잇슴에 비추어 총독부 학무국에서는 이번 전조선에걸처 그실정을 조사하야 장래의 원활한 수급대책을 수립하기로 되엿다 이리하야 수일전 각도지사와 관립학교장 공사립전문학교장에게 통첩을따위 체육운동용구의 조사를 명하엿다 그조사종목은 다음과갓다

一、고무제품=정구에쓰는 뽈과 여자야구에 쓰는뽈
一、피혁제품=축구에 쓰는뽈과 『럭비ー』축구에쓰는뽈 배구(排球)에쓰는뽈과 기타여성종목
一、철제품=포환 원반 창『햄머ー』『스케ー트』
一、면제품=정구에쓰는 그물과 배구에쓰는그물

그리고 이조사로써운동용구중어떤것을 더만히하고잇는지 그분포상황을 통하야 운동종목과환경 또그환경에 따르는운동의 발달상황도 판명될것으로 이에따라 장래지도방책도 수립될터인데 당국은 그조사결과에 매상한기대를 가지고잇다

스포ー츠

陸上競技中等、高專 朝鮮最高記錄

朝鮮陸上競技聯盟에서는 今年度陸上競技의 中等學校及高專의 朝鮮最高記錄을 다음과가티 發表하엿는데 其中에는 今年七月十八日에 大連에서 行한 全日本對滿洲對抗陸上競技에서 記錄七米四와 同八月二十一日에 奉天에서擧行한 第五回朝鮮對抗陸上競技三段跳에 十五米六三은 世界的記錄을樹立하야 一層의 異彩를放하고잇다

朝鮮中等最高記錄

▲百米 一〇秒八 金[illegible](培材)
▲二百米 二二秒[illegible] 金[illegible](培材)
▲四百米 五[illegible]秒[illegible] 李[illegible](養正)
▲八百米 二分[illegible] [illegible](養正)
▲千五百米 [illegible] 孫[illegible](養正)
▲五千米 [illegible] 安[illegible](養正)
▲四百米[illegible] [illegible] 李[illegible](徽文)
▲千六百米[illegible] [illegible]
▲高跳 [illegible] 本 [illegible](京師)
▲低障碍 [illegible] 李[illegible](徽文)
▲走幅跳 [illegible] 本 [illegible](京師)
▲走高跳 一米[illegible] 秋田(光中)
▲三段跳 [illegible] 秋田(光中)
▲投圓盤 [illegible]
▲投砲丸 [illegible] 安[illegible](培材)
▲投槍 [illegible] 印[illegible](培材)

朝鮮高專最高記錄

▲百米 一〇秒八 [illegible](普專)
▲二百米 二二秒四 [illegible](普專)
▲四百米 五一秒五 [illegible](普專)
▲八百米 二分[illegible] 洪[illegible](普專)
▲千五百米 [illegible] 孫[illegible](普專)
▲五千米 [illegible] 孫[illegible](普專)
▲高障碍 一六秒一 [illegible](普專)
▲中障碍 五七秒六 [illegible](普專)
▲四百米[illegible] 四五秒一 [illegible]
▲千六百米[illegible] [illegible]
▲走幅跳 一米[illegible] 山本(高商)
▲三段跳 [illegible] 金[illegible](普專)
▲棒高跳 [illegible] 金[illegible](普專)
▲投圓盤 [illegible] 朴[illegible](普專)
▲投砲丸 [illegible] 松[illegible](高商)
▲投槍 [illegible] 久(大專)
▲投鎚 [illegible] 白承[illegible](普專)

朝鮮研武館柔道 昇段進級者發表

朝鮮研武館에서는 지난달二十二日에 秋季昇段進級試合을 擧行하엿다는데 當日은 同館을위하야 獻身的援助를 하는 東宮氏의 理事就任式도 擧行하엿스며 試合成績과 其間의成績에依한 結果 昇段進級者는 百二十五에達한다고한다

▲二段=尹[illegible] 車[illegible] 朴東[illegible] 金南[illegible] ▲二段候補=[illegible] 李允[illegible] ▲初段=梁石[illegible] 金在[illegible] 朴[illegible] 張基[illegible] 成[illegible] 崔[illegible] 林 ▲初段候補=金 春 權 金[illegible] 李[illegible] 李裕宅 ▲一級甲=[illegible] 洪性[illegible] 洪永[illegible] ▲一級乙=李[illegible] ▲三級甲=崔昌來 ▲三級乙=崔英[illegible] 鄭水[illegible] 裵小金 金 ▲四級甲=李[illegible] 李[illegible] 金丙[illegible] 申[illegible] ▲四級乙=白壽山 [illegible] 金[illegible] 金 ▲五級=三十名 ▲六級=六十名

『防火뻬ー』盛況

【原州】 지난일일『방화데ー』를 마지한 원주소방조(原州消防組)에서는 오전십시부러 남산지사(南山神祠)에서 각관공서 유지와 각소학교아동이참집하야 방화기원제를 정엄히집행하고 우도(牛島)서장의 연설이잇슨뒤이여 원주악대를선두로 방화선전시가행렬을 성대히 거행하엿다

天氣豫報

槪況 中支那의高氣壓은 東으로 移動하야 朝鮮으로부터 本邦西部에擴大되여 蒙古及沿海道 氣壓이놉다 滿洲西部에는 弱한低氣壓이잇다 滿鮮及西日本은晴 裏日本及 東北支方은 흐리기쉽다 處處에 小雨가잇다

豫報 今夜晴 明日은 晴

時象 昨日最高 九度 同 最低 一度 三日朝六時 零下二度一 同 正午 七度七

第一放送

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六時三〇分 趣味講演 敎文中學李秉岐▲七時三〇分 講演 普成專門安浩相▲八時 라디오코메다▲八時三〇分 南道歌謠▲九時 音律▲一〇時一〇分 中等國語講座

第二放送

▲午後六時 童謠▲六時二五分 (大)歌謠▲七時四〇分 (東)講演▲七時三〇分 (東)講演▲八時 (東)新民謠▲八時四五分 (東)小說▲八時 ... 九時一〇分 (東)레뷰

名觀相家

開運의好機는只今! 聖龍先生의判斷은如神

京城觀相學院長 聖龍先生은 東洋哲學的判斷으로 大好評 ... 婚姻, 結婚, 夫婦間의일, 株式, 期米, 鑛山, 其他, 당년신수 平生의길흉, 訴訟의勝敗等어떠한일이든지 聖龍先生은明確하게判斷하야 成功의길을指示함

(성룡선생)

◇京城太平通二丁目 京城觀相學院 ◇地方에게신분은 ...

朝鮮文學讀本發賣!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洞 平和堂 一劑一圓

土地家屋擔保貸付

營業項目 土地家屋擔保貸付 建築資金貸付 土地家屋評價鑑定 土地家屋管理分讓 土地家屋賣買紹介 火災保險代理事務

創立 明治二十九年 資本金 壹千四百三十七萬五千圓

東京建物株式會社京城支店 黃金町二丁目五五 電話本局 一二六八一 營業案內送呈

讓店

菓子及食料品店(貸電話付) 京城寬勳町通 同意二電 龍一六八九 某菓子店

朝報案內

産地直接 本絹、交織、ファイバーセル、人絹布木 二等格安品、ハギレ 福井市城町三ノ九 松村六太郎商店 上品見本送附

風病

世間의風病은不治病이라고한다 ... 朝鮮忠淸道 ... 回春藥院 壽石藥院 瘋病根絶策研究所

ウネビ自動給紙 輪轉謄寫機

가자랑하는點 印刷의位置 最初의一枚부터最後까지가튼位置로백여집니다 位置의變更 나사를돌리는것만으로우으로나아래로백여지게됩니다 給紙 給紙는完全無比합니다 價格低廉 從來의輪轉機의½或은⅓의價格입니다 取扱簡單 婦人이나兒童도使用합니다

正價 ウネビ 80號 ¥68·00 普通版 ウネビ 100號 ¥98·00 美麗版

ウネビ謄寫스탬프 正價¥3·80 (箱入附屬品一式付)

特長 1、本器의魅惑 熟練안코도누구나 곳使用되고 한번本器를使用한이는 모두愛用합니다 2、用途 通知狀、計算書、送狀、案內狀、價格表、獻立、訂正、傳票、謄寫版、刷込印刷、其他印刷使用範圍擴大 3、一回의잉크의塗布로數百枚의印刷가됩니다 附屬機 正價 ¥1·80

特約店募集 申込하시면 規定書進呈

京城府黃金町二丁目 野中合資會社

漢藥種商講義錄

新版出來 京城府 ... 朝鮮藥業研究社

眞冬のスポーツ 銃後の保健 兎と小鳥が面白いほどよく獲れる安全な遊び

麻系 サウギ 網 特製 純絹糸製 かすみ網

京城南大門通二丁目 網久商店 電話本局六二三五番 振替京城二二六六番

外科 肛門病科

入院室全部獨房 暖房及冷房完全 醫學博士 朴昌薰 京城府樂園町一三五 性器及皮膚整形手術每日施行 黴毒梅毒根治療法隨時應酬

理髮器具特價提供

家庭用高級品 一組 一圓五十錢 年末까지記念品進呈 京城府敦岩町 海洋號

滋養菓子 マンソラ王

一個五錢 京城南大門通 豐國製菓株式會社謹製

SINKO PHARM & CO SEOUL KOREA

サツタリム은何故로他種淋藥보다特效한가?

本社는 其理由를 千萬가지 誇張보다 學理的 科學的으로 證明하려한다

時代에뒤진 白檀油나 プロタルゴール製劑等은 다시 學論할必要가업고 요새 各新聞이나 雜誌等을 들고 보아도 有名無名宏壯하게 떠들고잇는 SO_2NH_2基(スルフオンアミド基라稱함)을 含有한藥 即 NH_2⬭SO_2NH_2라는 化學構造式을가진藥이 잘듯는다고 야단치고잇다 勿論 在來淋藥보다 잘들엇다 그러나 世上은 特히 科學界는 날노進步한다 昨日까지 第一조타고하든 NH_2⬭SO_2NH_2라는藥도今日은 一層改良하야 SO_2NH_2基가 一個뿐만아니라 二個를 化學的으로結合시켜 더욱 作用을强化시킨 NH_2⬭SO_2NH⬭$SO_2N{<}^{CH_3}_{CH_3}$라는 藥이 나왓다 그作用은NH_2⬭SO_2NH_2보다 數倍强하야 如何한 惡性淋菌이라도 撲滅시키고야만다 サツタリム은 이强한藥을 主成分으로 하고 其他 β-PH-α.α-DIAMINOPYRIDIN. T.B.U 等特效成分을 配合시켜 一層治淋作用을 强化完全無缺하게한것이다 한번만 꼭 써보시라! 絶對한自信을가지고 良心的으로 勸합니다 이廣告內容에對하야 不明한點이잇스시면 本社나또는가장 親近하신醫師 藥劑師諸先生께 問議하야주십시오

淋疾不可恐!!

本劑主成分에對한斯界最高權威의經驗談을보시라!

朴昌薰 外科 泌尿科

醫學博士 朴昌薰先生發表

過去數年間パラアミノベンゼンスルフオンアミド製劑가 簇出하야 相當한效果를보앗는데 이제 前者보다 一層改良되야 SO_2NH_2基를二基含有한 サツタリム을 使用하야본 結果 急慢性淋疾은 勿論이고 其他 各種腫氣 後髮際 走馬痞等에 卓效엿슴에 驚嘆不已 하얏다 今後醫療界에 큰貢獻을주리라고 確信하는바이다

皮膚泌尿科專門

醫學博士 鄭槿陽先生 談

本劑의主成分은 サルバルサン以後에 처음보는 化學療法의成功이요 一般球菌類에對하야 偉效를呈하며 特히 急慢性 淋疾及丹毒에 卓效를가지고잇다

從來의製品 即ズルフオンアミド基 한個를 가진것보다 여것을두個含有한 本劑의主成分은 더한層 큰效果를 期待할수잇다

醫學博士 石津氏 發表

本劑를 淋疾에 應用한 余의實驗을 總括하면 實驗例26人中에서 此를 大別하면 男子急性淋疾12人 男子慢性淋疾7人 女子急性淋疾7人이다 以上 治療에際하야는 專혀 本劑만服用시키고 他療法은 一切廢하엿섯다 그 效果는顯著하게 輕快하고 尿混濁及淋菌이 消失되엿다 治療經過는 大端히 速하고 奏效偉大한것이 注目할만하엿다 漏膿停止尿混濁自覺症狀及淋菌의消失도 非常히 조왓고 從來의 スルフオンアミド製劑의治療經過에極히 類似하나 그것보다 數倍越等하얏다本劑를投與하야 完治된 日數를보면

4日間投與한者	2人	投與한 日數는 過半數22人
5日間投與한者	6人	十日以內4人은 17日以內에
6日間投與한者	7人	治療目的을 達하얏다 大部
7日間投與한者	3人	分은 4–6日間完治되엿다
8–17日間投與한者	8人	(大要譯)

醫學博士 土屋 / 醫學士 佐藤 兩氏 發表

吾等은 スルフアニールアミド의 發見에依하야 淋疾治療의革命에까지 到達하얏지만 아직도 本劑에抵抗하는 幾多의 症例에遭遇하얏다 이러한 例에는 從來 尿道洗滌 尿道鏡的治療以外에는別無道理엿스나 玆에 ウリロン에 一致하는 本劑의發賣에依하야 一層淋疾治療의完成을 보게된것은 喜賀不堪하는바이다 本劑는 慢性淋疾에特히 잘듯고 더욱スルフアニールアミド로 治療안되는 症例에잘 들엇다 그리고 本劑는 スルフアニールアミド에 比하야 副作用 特히胃腸障害가 적고 大量衝擊에도 容易하게 服用할수잇섯다 吾等은淋疾에 對하야 一層 더욱 强固한 武裝을엇게됨을깃버마지안는다 (大要譯)

全世界的으로有名한サツタリム의特徵은

(1) 一日六錠이란 最大量을 服用해도 絶對로 副作用이업고
(2) 特異成分에依한 赤褐黃色尿가나오며
(3) 速하면 二日 느저도 六七日後면 꼭 낫고
(4) 不過拾餘圓이면 完治되니 經濟上으로보아도 廉價이고
(5) 再發할憂慮가殆無합니다
(6) 本劑는 梅毒에 六〇六號나 マラリヤ(학질)에 キニーネ(금게랍)와가치 治淋에 絶對特效가 有합니다

本社는 人類生命을 直接左右하는 製藥家로써 最高技術과 最高人格을 要하는 注射藥製造가 本業이여서 全國有名한 病院이나 藥店이나 우리 藥이 안가는곳이 업습니다。그엇지 다른 虛無猛狠한廣告와갓겟습니까

豫防用으로는

事直前이나 直後에 本劑 二錠만 服用하시면 絶對 安心됩니다 國家를。子孫을 爲하야 무서운 花柳病을 豫防합시다! 撲滅합시다!

004203

淋疾絶対特效藥
殺打淋
サッタリム SATARIME

急性用 五円
慢性用 十二円
德用 二十円

(全国有名藥房販売)

總發賣元 **新興製藥所** 京城府堅志町

代理店 株式會社 **新井藥房** 京城・圖們

出張所 ハルビン 圖們 大阪

SINKO PHARM & CO SEOUL KOREA

고푸다흠빽먹는 「보-나스」요리

갑싸다고작고사드리면식상돼요 아씨마님 돈주머니입을닷칩시다

오래지안허서 다소를 물론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연말텃더쓰가 나오게될것입니다.

이뻐더쓰는 봉급자의 빠뜻한살림사리가운데서 한번 크게 심이 페이는것인데 그러치만 놉흔생각해본것보다는 헤푸게 씨워지기쉬운돈입니다.

위선 그돈을바더주면 사내양반들은 「한잔먹어야」한다고 얼마쯤은 집어가지고 나가고 그남어지가 부인들 손에 들어오는데 부인들도 오래가만에 돈뭉이나 어더본김에 살림의옹색하던것, 입구시픈것,먹구시픈것을 사고십습니다.

더구나 연말이되면 거리거리엔 빨간표를 부친 「싸구려」물건이 나혀지고 각백화점파 상점들에선 손님을 끌을기에 야단스러운선전을하고-이러케되고 보면 부인네들의마음이 욱신욱신해나서 못견디게됩니다.

그러나 이미아시는바와가티 지금은 그러케함부로 돈을 쓸때가아니지안씀니까. 저지하에연말시장풍경은 좀더신중해야할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인들은 돈을 들고거리로 나가지말고 이내저축을하도록 스사로 주머니끈을 단단이쥐고 노치마십시요.

×

대체로 부인들은 특매(特賣)속싸구려를조와합니다. 여기에서 물건을사는사람의 심리를 따저보면 대체로아래와갓습니다.

1、꼭필요하니까사자。

2、싸니까 사자。

이상의 두가지 동기로물건을 사게되는데 곰븐으로특히례년보다 좋더마음을 단단히가지도록하시기바랍니다.

특매라는것은 장사하는법으로보면 소매(小賣)의 일종인데 말하자면 때가지낫거나 팔니지안는물건을 갑을헐하게해서 처리해버리는것

1、상품에따라서는 잡화나 옷감의남은것을 특매하는것

2、상점에서 곳어음이밀요나 빨니상품을 돈으로바꾸려할때

3、처음부터 특매품이라고해서 따로만들어 특매하는경우

이상세가지를 들수잇는데 세째것파가튼것은 특매나마나한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보아서 「특매」하는것이 한것만은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한해서 특매에는 그리케경제되는것도아닙니다.

웨그러냐하면 대개로 특매하는데가면 꼭필요한것의에도 눈에보히는 조흔것은 보는족족사고십은 충동을밧습니다.

그래서 필요이상에 사게됨은 필요이외의것을 사게됩니다。예를들면 열개면 자기네가족이 넉넉히먹을수잇는물건인데 섭섭하게 특매사면족 사오면 그담에것이 상하거나 결국그다지 중하게씨우지안는다면 이것은 특매를 햇지만 별로이익이업는것입니다.

또는 꼭필요해서 살려고하는경우에도 「미끼상품」이라고해서 원가보다차게파는 법도잇습니다. 말하자면 한근에 이십전하는설탕이잇다고합시다。이것을 가지고 특가(特價)제?라든지 무에라고이롱을부처서 내걸고이전이나 사전쯤차게팝니다。

그러나 설탕에서는 조금미쩌지만 차게파는 설탕사러온손님들이 다른물건을보고 그만마음이동해서 사게되니 결국 상점에선 여기에서 설탕갑을보충하게되는것입니다。

이것은 상인들의상략법이지만 어쨋든 부인네들은 눈에띄이는것은 다사고시퍼하고 더구나 차게판다는것은 내노치안코사려고합니다.

그러므로 가장되시는분들이 빨리쓰는물건을 가저오거든 꼭필요한것은 사겟지만 그밧게는 되도록 눈을감어버리고 주머니끈을 졸라매십시요.

가정

현처"인지" 악처"인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대답은 몰래 속으로

박가야밤은 일가시고 아이들은 학교에놀가고 섬거지는 다했겟다 빨래할것은없고 꾸여새할것도 더러못내겟다……할일을다해노아잠시한가하실때이글을한번입거보시고 못수를따저보세요

◇

제목은 『현숙한 안해의자격』인데 아씨께서 이러한 자격을가지섯는지 못가지섯는지 그것을시험해보는 글입니다 이아래에 삼십가지 조목의뭇는말이잇습니다 아씨께서는 이뭇는제한문제에대해서 정직하게 대답을해보서요 남듯는데하는 대답이니까 얼마든지 정직하게 대답하실수잇지안어요?

삼십가지조목중에서 『아니요』하고 대답할조목이 스물넷이상이되면 아씨는 참말현숙하신안해의 자격이 확실이잇는것입니다 스물넷이상이되건 그보다훨씬다 스물한열이나 다섯이 되건간에위선한번 대답해보십시요

一、아침에 남편보다 더늣게이불속에 드러게십니까

二、몸치장 얼골치장은 남편이일가신뒤에 천천이하십니까

三、남편의 친구되는분과 노닥니까

四、몸에조곰니 경제가되느니하고 는피게를 대여남편지지상옵아무러케나 해서바치십니까

五、웬만하거든 오늘저녁은 바게서 사잡숫고 드러오시구려 이러말슴을 조용하십니까

六、당신옷에 돈을만히드리십니까

七、남편이 정성을드려 각구어노은화초밧에물음자조주십니까 그리고 꼿이나 이파리를 예사로 뚝뚝 잡아떼는수가 잇겟지요

八、당신댁에는 언제나손님이오십니까

九、남편의 사무소에 자주전화질을하십니까

十、애기들을 늘 남편에게 맷기십니까

十一、남편의담배를 더러빼서피우십니까

十二、남편에게온 편지를 뜨더보십니까

十三、남편이 오늘은무슨넥타이를 매고나섯는지 무슨양말을 밧구어신엇는지 매일옷수의해보시지안습니까

十四、남편이 양말을 왜안꾸어 맷느냐고 찟찟거릴때에 비로소 바늘에실을 들고나섭니까

十五、집안일이 귀찬으시지요

十六、더러 남편을졸라 놀러가자고하십니까

十七、무파추나 차꺼리사는것도 번번이 남편과 의론하십니까

十八、남편이 늣게도라와승때그이유를 캐고무르십니까

十九、남편이 시시하고 번번찬다고 생각하십니까

二十、나제 실컨잠을 자고서도 남편이도라올때 종일 일만히한것처럼 『아이팔 다리』하십니까

二十一、남편이 자기전에 먼저이불속으로 뛰어드십니까

二十二、입버릇으로 늘어디가 아푸 괴로우니 하십니까

二十三、갑금 별로통하거나 기벽울떠십니까

二十四、감기드러 코물이흐를때남편의 손수건을 쑥빼어가지고 써습니까

二十五、개에게 밥주는것도 큰일이나하는것처럼역이십니까

二十六、남편파백화점가튼데가서물건을사올때 짐을 남편에게맷기십니까 (기저귀가방을 남편에게들리시는분께)

二十七、천하대세를론하십니까

二十八、남편의구두는남편이닥도록 내버려두십니까

二十九、방쓰는것이 남편이박게나 갈뒤에하십니까

三十、남편이 중한일을 의론할때에 놀래고뒤떠들고 하십니까

이설문가지 질문만가지고따저보세요 악가도 말햇지만 스물네가지이상 대답이 『아니에요』이라면 훌륭하신 안해이겟고 열여덜 가지만『아니요』가돼도 그냥저냥 수더분한안해가 될께고 열여덜가지이하면 섭섭하겟지만 납분안해축에듭니다 죄다 『그럿소』하고 대답이나올지경이면 남의일이래도 착떠한니다

손수건빠는법

손수건은 우리가 날마다가지고단니며 써야할껀데 아직도외국사람들이나 일본내지사람들만치 손수건이 일반화되지못한것은 유감중의 하나입니다.

이손수건이란것은 몹씨 더럽기쉬운데 하로에 한개식은 늘 새것으로 밧구어가지고 다니면 조흡니다.

그런데 손수건은 때가몹씨무든만큼 그냥비누에다만 빨어가지고는 퍼러케되여가지고 깨끗지못합니다.

이럴때는 보드라운 재를 그릇에담고 옛날식으로 잿물을내려가지고 그물에 하로동안 당거두엇다가 그담에 비누로 빨면 하얏케됩니다.

그런데 빨래를 삶드시 뜨거운잿물을 써서는 안됩니다 그냥찬것에 당거야하는데 그래도처음 잿물을 내릴때는 뜨거운물을 부어서 내려야 재여잇는성분이 잘빠질수잇습니다.

입덧이거니하고 예사로알지말일

생명에관계되는수도잇다

임신해서 이、삼개월이되면약반수이상의 부인네들은 소위『입덧』이나는데 즉이것은 여러분께서 거이다 아시는바입니다.

즉 입덧이난다는것은 신경이생각난다든지 평소에먹지안튼것이 불시로 생각나거나 하여튼입맛이 야릇해지는것입니다.

더구나 아츰에 일어나면 구역질이나거나 음식을 먹으면곳 토해버리거나 또는 식욕이 만히감해집니다. 이와가튼 현상은입란(姙娠)으로부터 나오는 독소때문이라고하는데 가벼운것은 염려할것업고임신해서 사개월쯤부터는 다시괜찬어집니다.

그런데 한가지딱한것은 이것이 보통입덧에 끄치지안코 아조심해서 병적일때는 반드시의사에게 진찰을 바더야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네가정에선 부인네들이 입덧이나도 다른사람이 그다지모르게 참어야미덕인줄알고 혹심해서 고통을하면돼려 변덕을피운다고 남의게조소를 바들지경입니다

그런데 입덧이심하다고 의사를보인다면 공연한 호사나하는줄알기쉬우나 사실은 그러치가 안어서 이입덧이 병적으로심할때는 생명을일는수도잇스니 미리 의사의지도를 바더야합니다

보통으로 입덧이나는것은 생리적현상이니 하는수업고 되도록 뒤를잘보게하고 구미에맛는것으로 먹어서 영양이 부족하지안케하는것이 조흡니다.

그러나 음식을 전혀못먹고혹은작고 토한다든지해서 몸이수척해서 병적으로 되는것이잇는데 이것을오조(惡阻)라고합니다 그바이것은 간장(肝臟)이나 그밧게다른중요한 장기(臟器)가 몹씨해를밧기때문에 빨리적당한치료를받지아니하면 가령 배ㅅ속에 어린애기는 인공류산을식혀 허생식히드라도 어머니의 생명을일는수가잇습니다.

그런데 보통입덧과 오조즉병적입덧파고 얼는구별하기어려운데 보통입덧으로 몹씨심하거나 오랜시일이걸릴때는 반드시의사의게 보혀야합니다.

더구나 아조심한 오조는 폐결핵、회충、자궁후굴、창택、양수과다증(羊水過多症) 못장긔(腳氣病?)등의 여러가지 병을겸해서나는수가잇스니 무서운것입니다.

그리고 입덧이심해서 소화가되지안코 음식을 먹지못하면소화불량이나 위궤양(胃潰瘍)으로알고 내과의사를 보이는분이만흔데 이것은 산부인과에가야 바로볼가를 배어것은 사보인과에가야 바로 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신의증세가 잇고 보통입덧보다 심해서 사람이견될수업다고 생각될때는 꼭가를의사를 차저야합니다.

여러가지동물의 젓의성분비교

사람의젓과 즘생들의 젓의성분을 비교해보면 퍽재미잇는것이 만습니다.

사람의젓은 사람젓다움에 적당한데 사람이먹기에가장 그답이 양유입니다. 외국사람들은 양의젓을 만히먹는데 일본내지나 조선서는 아직 그다지 만히 먹지안습니다.

먼저 사람의젓파 우유를비교해보면

	모유	우유
지방	三、〇	三、五
담백질	一、五	三、五
유당	六、八	四、八
회분	〇、二	〇、七
수분	八八、〇	八七、五

이상파가튼습니다 그리고 비타민은 사람의젓이 『에이』로부터 『띄』까지 비교적만습니다 우유에도 비타민이 만흔데 그중에B는 사람의젓보다 더만습니다

염소의젓은 지방四、三 담백질四、六 유당四、〇 회분〇、六 수분八六、五 이상파 가튼데 비타민은『에이』와『띄』가 사람의 젓이나 우유의어느것보다도 만코조흔데 지방이만코 유당(乳糖)이 적기때문에 맛이조금 덜합니다.

그밧게 사람은먹지안치만 말이라든지 코키리가튼 큰즘생들의젓을 비교해보면 재미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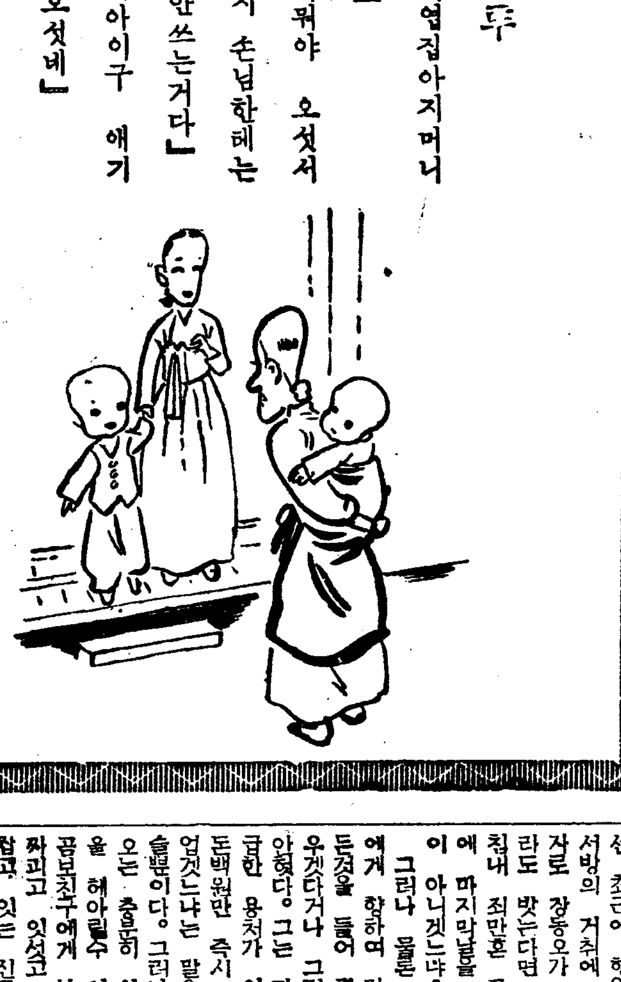
	말젓	노새젓
지방	一、二	一、六
담백질	一、九	二、二
유당	六、大	六、一
회분	〇、三	〇、五
수분	九〇、一	八九、六

	고래젓	코키리젓
지방	一九、四	一九、六
담백질	九、五	三、一
유당	一	八、八
회분	一、〇	〇、五
수분	七〇、一	六八、〇

이러케되여 잇습니다 그런데 사람의젓 우유 산양의젓은성분의배합이 거이갓기때문에 우리가맛잇게 먹을수잇스나 말젓이나노새젓은 물론 먹을수가업고 더구나 고래젓이나 코키리젓은 기름이만허서 어림도업습니다.

칼로리는 양유가 제일놉고사람젓파 우유는 가튼정도이고다른젓은 대부분 적습니다.

지차리우



말투

「어머니엽집아지머니 가왓수」

「왓수가뭐야 오섯서요 그러지 손님한테는 그런말 안쓰는거다」

「그런가아이구 애기도 업혀오섯네」

(글쓴사람 황인수)

長篇小說 愚氓 【180】

朴泰遠 作 / 洪祐伯 畵

술푼사랑 (12)

장동오에게 이끌리어 동대문밧 용두리로 나간 신곱보는, 동오가 십상팔구로 예칙이 잇섯던바와 가티 맹서방의 일을 가지고 금품(金品)을 요구하러 들어던것이다.

그는 물론 근동위가 그날밤 맹서방에게 말하던 무슨 비밀한 『교』라는것이 『백백교』며, 교주가 무어 『전영호』라는 사람이며 가치 연천으로 도망을 가자고 맹서방을 이끌어 내어다가 사람의 이목이 미치지안는 산속에서 죽여 업센것이며 —、그러한 모든 놀라울 사실을 하나라고 알고 잇섯던것은 아니다. 그것은 물론 장동오로서도 자신잇게 단언을 할수 잇는 사실이엇다.

허지만 그러한것이 큰문제일터 업다. 하여튼 그날밤 장동

자의 집에서 [illegible] 부에게 일른 말은 [illegible] 짓말이던 그내용이 너무나 중대한 것이엇다。교의 이름도 교주의 이름도 비록 밝히지안헛스나 하여튼 교도들에게 대하여 생사여탈(生死與奪)의 절대의 권력을 가지고 잇는 교주의 존재부터 그 것이 그대로 당국에 알려질때 비상히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것임에는 틀림 업는 일이엇고 그보다도 우선 최근에 행위불명이 된 맹서방의 거취에 대한 직접책임자로 장동오가 당국의 지목이라도 밧는다면 그것만으로 마침내 죄만흔 교주와 그 일당에 마지막날을 보게도 되는일이 아니겟느냐?

그러나 물론 신곱보는 동오에게 향하여 자기가 그러한 모든것을 들어 경찰에라도 알리우겟다거나 그러한 말은 하지안헛다。그는 다만 자기에게 긴급한 용처가 잇스니 급한대로 돈백원만 즉시 변통하여 줄수 업겟느냐는 말을 한마디 하엿슬뿐이다。그러나 그것으로 동오는 충분히 신곱보의 마음속을 헤아릴수 잇섯다 그는 이 곰보친구에게 분명히 약점을 붓잡히고 잇섯고 그의약점은 이제 아프로 언제까지던지 또 몃번이던지 외갓 방법으로 동오를 괴롭힐것이다.

(이후 그놈을 어떠케 당하겟단 말이냐?……)

장동오는 신곱보에게 대하여서도 역시 최후의 수단을 취할 박게 아무 다른 도리가업다고 결심하엿다.

그는 그래、

『신서방 우리、주량이나 한그릇 자십시다。』

하고 들어간 형제주점에서、엽융뱅어 친구에게서부터、

『거、갑자기 미안스런 청이네마는、수삼일내로 돈백원、주선좀 못해 주겟나? 그돈이 안되면、아주 큰 낭패될일이 잇서 놔서……』

하는 말을 들엇슬때、아、그러십시다그려——하고 선선히 대답하고、

『그럼、바루 저기 용머리에 내가 의히 아는 친구가 잇는데、먼저 그친구에게서라두 돈을 어더드리겟씁다。가치 지금 안가시겟나요?』

하고、그리로 그를 이끌어 가지고 가서、동오는 마침내 신곱보의 목숨을 빼앗는것에 성

대위님이 [illegible] 입틀』이라 하여、[illegible]、근동위의 요직에 발탁 한것은 역시 현명한 일이라 아니할수 업다

그 이튼날 오후 여덟시방경에 그는 신곱보의 시체를 아무러케나 거적에 차서 자전거뒤에 비끄러 매고 꼭 이목이 번다한 큰길거리 한 복판만 택하여、종로 네거리로 하여、조선은행압으로 하여、남대문을 지내고、경성역 압흘 통과하고、한강통을 그대로 철교에까지、이르고 말엇다.

대체 어떠한 사람이 일찌기 그일을 꿈에서나 상상하여 볼수 잇섯슬것이랴?——결코 남의 눈을 끄리는 일 업시 자기네들의 바루 아플 유유히 달리는 자전거 뒤에、매어달린 한쪽거적속에 사람의 시체가 잇스리라고 참말 누가 그러한 엄청난 일을 생각이나마 할것이랴?……

그믐밤이엇다. 한강물은 쉬지안코 흐르고 또 흐른다. 첫여름의 한강은 그믐밤에도 찾는 이가 적지 안헛다 그러나 그、중의 아무도 인도교난간에가 의지하여 다리란도 쉬는듯시픈 한사나이를 살인자로 알아내는 이는 업섯고 그러니 그의 여페 세워노흔 자전거뒤에 한개의 시체가 실려잇다고 생각이 미칠 사람이잇슬리업다

장동오는 강물을 나려다보며 가장큰실업는 사람인듯 싶게 휘파람조차 부는것이다.

新選文學全集

全讀書界를震撼하는 旋風歡呼의大人氣!!

이兒童文學集은 二十年間 朝鮮兒童文學의 精髓를 總蒐集한것으로써 兒童文學界의 最高權威 五十八名先生이 그들의 絶對自信잇는 珠玉가튼 童謠、童話、少年小說、兒童劇等 九十餘篇을 收錄한것이니 實로 우리 兒童文學界에처음이오 마지막인 一大金字塔이다。七百萬朝鮮家庭에 戶戶마다 秘藏할 永遠의 寶庫이니 學校、家庭、圖書館 어느곳에나 반드시一册을 備置치 안을수업다。그리고 子弟를 가진분은 千兩의 黃金보다 이한册을 그들에게주라。조흔아이 훌륭한敎訓은 이册에서 비로소 어들수잇다。只今注文殺到中

朝鮮兒童文學集 三回配本

一回配本	朝鮮文學讀本	發賣
二回配本	新人短篇集	發賣
三回配本	兒童文學集	發賣
四回配本	女流短篇集	(來年一月發賣)

半萬年間朝鮮童心의發露

朝鮮兒童文學의最高殿堂

內容目次一般

—童謠—

꼿밧(一外一篇) 朱耀翰
까막잡기(一外一篇) 朴八陽
고드름 柳志永
외나무다리(二外一篇) 尹石重
참새(一外一篇) 鄭寅燮
옛날옛적한영감(二外一篇) 李軒求
엄마야누나야 金素月
말(二外一篇) 鄭芝溶
날대가리무첨지(一外一篇) 鄭烈模
귀뚜라미(一外一篇) 方定煥
반달(一外一篇) 尹克榮
헌모자 黃世冠
빨래(二外一篇) 韓晶東
가을 崔順愛
시골밤(一外一篇) 李貞求
시골길(一外一篇) 千正鐵
진달래(一外一篇) 申鼓頌
동리의원(二外一篇) 尹福鎭
봄편지(一外一篇) 徐德出
아침노래(一外一篇) 李元壽
비야비야오너라 金泰午
고부랑할머니 崔永愛
물살(二外一篇) 朴泳鍾
닭(一外一篇) 姜小泉
햇빗은쨍쨍 崔玉蘭
누가누가잠자나 睦一信
장명등(一外一篇) 林春吉
물새 許三峰
눈물 康承翰
댕댕이 廉根守
나팔꼿 郭蘆葉

—童話—

엄마중(一外一篇) 李泰俊
자전거 皮千得
물딱총(二外一篇) 玄德
쌍둥밤(二外一篇) 李永哲
소곱질(三外一篇) 朴泰遠
고무공하나로 金東吉
몽당연필 任元鎬
추위 丁友海
거짓말 宋昌一
샤록크와업순이 洪九
땅벙어리 金福鎭
다람쥐 李光洙
진달래와옥순이 朱耀燮
가지마라엄마야 金永壽
어머님의선물 馬海松
이상한연적 李定鎬
쥐와고양이 田榮澤
生命水 秦長燮
百日紅이야기 高漢承
난파선 方定煥

—童劇—

장님과코끼리 馬海松
요술모자 申鼓頌
맹꽁이 鄭寅燮

—少年小說—

까까머리生徒 姜君
멀리간동무 白信愛
팔뚝時計 李東珪
慶姬의빈벤또 崔秉和
새로온夜學生 宋影
고구마 玄德

京城太平通一丁目六一番地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四六版 銀字入 豪華洋裝美本
用紙 最高級純白洋紙使用
一册定價 一圓二十錢(送料二十二錢)
一時拂 四冊 四圓五十錢(送料本社負擔)

훌륭한裝幀과 아름다운그림!

이兒童文學集은 朝鮮에처음보는훌륭한裝幀으로써 鄭玄雄畵伯의苦心裝幀이다 그리고冊칫머리에역시 鄭畵伯의아름다운四色度扉畵가잇고 이外에童話童謠兒童劇 少年小說마다아름다운그림커트가 잇스며한글校正은이方面權威인 金炳濟氏가責任校正하여 훌륭한이冊에다시錦上添花의格을 일우엇다

來禮行 —— (六)

智異山名攷

崔益翰

一山으로서 異名別稱이 만키로는 智異山이 有名하다 그래서 自己들의家後山으로 알고 잇는 求禮人士는 山名에對한 論議이 紛紛하거니와 筆者가 昨夏의用務를띄고 本鄕에 와서잇슬때에 本社의智異山探勝隊에 參加한 鷺山李殷相氏의『智異山名稱攷』가 그의紀行文中에 마침發表되야 宿題의論議를 더한층活氣지켯다 見識이 엷은 筆者는 이러한考證的論議에 積極的으로參加할 아모런 意見도 가지지못하얏지마는 本鄕士友의辛勤한要問과 더구나 나의親友인 支局長崔太榮君의 多事하 [illegible] 고로 [illegible] 諸說의本旨를 [illegible] 으로서 如左히 [illegible] 陳하는바이다

智異山은 [illegible] 名中에서도「지리」의音에 [illegible] 智、知、地、智利、[illegible] 頭流、頭留의 [illegible] 系列을 들수잇다 其外 南岳 方丈(或云頭流)方壺의 [illegible] 에 不過한것이오 月遊 或月留는 [illegible] 西厓 [illegible] 日遊(或作留)等、月遊(或作留)等 [illegible] 道詵碑의「[illegible]月遊山[illegible]寺…」와 金居 [illegible] 所撰 [illegible] 大師碑銘中의「年十八[illegible]於月遊山[illegible]寺…」는 모두 智異山의一部名稱을 가르친것이고 全體的名稱은 아니다 兩系列의名稱의 最古出典을 若干보이면 如左하다

(一) 智異山
(1) 崔致遠所撰 [illegible]和尙碑
(2) 三國史記中 [illegible]
(3) 三國遺事卷五 [illegible] 條中의 五岳 [illegible] 東吐含山 南智異山 北太白 中父岳亦云公山也」
(4) 李仁老破閑集卷上「智異山或名頭流 始自白頭山而起 花峰萼谷 [illegible] 綿亘千里 環而居者 十餘州 [illegible] 旬月 可窮其際畔……」
(5)、新增東國輿地勝覽의 晋州 咸陽、山陰、丹城、南原、[illegible] 求禮山川條에 모두 智異山이라하얏고 興陽山川條의 地利山은 自是 別個山名이다
(二) 知異山
[illegible] 眞鑒禪師碑
(三) 地理山
三國史記의 [illegible]
(四) 智利山
[illegible] 에서『大東[illegible]』[illegible] 의 約稱이라하야 智理、地利로交지안코 智利라하는것이正當하다한다
(五) 頭流山、頭留山
(1) 上記한李仁老破閑集卷上「智異山或名頭流…」
(2) 輿地勝覽南原山川條「智異山 在府東六十里 山勢高大 [illegible] 女眞白頭山之脈 流至于此 故又名頭流 或云 其脈 至海而盡 [illegible] 留于此 故 流作 留 [illegible] 又名地理 又名方丈 杜詩方丈三韓外 [illegible] 云方丈在帶方郡之南 是也 新羅 [illegible] 南岳 [illegible] 中祀 高麗及本朝仍之」

時代的偶然의受理

—事實에대한精神의態度—

③ 白鐵

事實에對한 하나의 限界와精神이란 主體的인能力에대한 信賴을가고 今日의 그現實의中心인 政治와對할때에 우리들은本來부터 政治에대하야 어떤時代나

完

全無缺한 最上의政治的行爲를 바랄수 업는것인 代身에 또한 아무리 最惡한 政治에서도 그行爲에는 歷史가失望할 要素만을 가지고 잇는법은업다 고 나는생각한다 그러기에 重要한 問題는 하나의 政治的現實에대하야 그것이 지금狀態와 다르기를 希望하는것이 아니고 그現實이 어떤性質의 政治든간에 그것이 歷史的所産으로서 可能한 構造의 內容을 設定하야 最大限度로 有利한要素를 擇하고 그要素를 中心하고 主體的으로必然的인것을 맨드는곳에그時代의現實을 살려내는『最上』의解決案이 잇는것이다。

이것을 政治와文化의 關係로보면 文化가政治에서 有利한因緣을 發見하고 그것과 結托하는게단이다 政治에 대해서 文化는 위선 그것과 對立하고 反撥하는데서 自己領域을 固守하고 獨自的立場을 保持하는것이 取할

第

一次의길이되 다음에는 나가서 거기에 血緣關係와 有利한點을 發見하야 그것과 接近結托하는것이 文化가發展하는 第二次의길일것이다。

나는 이때의 文化에서 政治와接近하는 關係를 月前의知識階級論의 一節에서 다음과가티말햇다『나의 文化階級論이나東京知識人들의 文化主義的傾向에 지금내가 滿足하지못하는것은…하나의 行爲的인것이 不足함을느끼고 잇기때문이다 知識人이 아모리 書齋와思索속에 산다고하더라도 우리들은 다시 現實의 世界에서 行爲와 부닥처야한다 또한 부닥칠밧게 업다』 이말을 政治와文化의 關係에잇서 第二次的으로 文化가政治와 結托해야한다는 意味에서 知識人이 政治와 交涉를 가진다는것이라면 그것은 몬저 말한바와가티 政治가 文化에 助力을 해주고 前路를 開拓해주는 有利한 中介의 行爲로 解釋되는境遇일것이다

이러한關係를 아랑은『政治와文化』의 一節에서 다음과가티說明하고잇다。『舵手의一擧 그것은 [illegible]하게 發來하야

骨

身과 부닥친다 그것은 政治的이란것보다도 肉體的인것이다 그러나 그不條理의行爲는 그自體로서 뭣인가를 나어놋는법이다。그리고 사람은 이미시작된 事態에 方向을 트러놋는일밧게 하지못한다。사람들이 항상 爲政者를 航路의 길잡이라고 비유해말하는것은그때문이다」여기서 이말을 一層明確하야 그不條理의 行爲를政治라고하고 거기에 方向을트는『사람』을 知識人文化人에비겨서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그政治的行爲 아래서 생각하는政治와 文化의 關係를 생각하는데 큰도움이 될것이라고 밋는다 이때에 잇서 그 政治的行爲라는것이 知識人의 길잡이라는 意味를 생각하기전에우선 그것이 自體로선 不條理의行爲라는것에 그行爲가決코 深選한것이아님을 생각해야할것이다 여기에대하얀 바레리-도 그著書『現代에對한 考察』中에서 말한것이잇다『實際政治의分野에 생기는 온갓사건은 必然的으로 皮相的이다』라고。그리고 政治的事件이 皮相的이란 理由로는『生可死의

重

要事가 안준한幸福에關한問題때문에等閑視된다 將來에關한일이 卽時的인 일때문에 妨害되고 極히 必要한일이 한갓 華麗한 問題때문에 無視되고 遠大하고 또 그作用이 緩慢한것이 刺戟的인것때문에 沒却된다」는 意味에서다。그리고 가튼意味에서 바레리-는 政治人과對立시켜서 文化人、思想人에 深遠한 價値를 부처든것이다 그는 歐羅巴의 偉大와衰頹를 論하는데서 다음과가튼 이야기한다。『歐羅巴는 일즉이 世界의어떤地方에대해서나 自己에게 服從시키고 그것을支配하고歐羅巴의目的에 따라서 命令하는데 그內部에 갓고잇섯다。歐羅巴는 다른民族이 到底히 對抗할수업는手段과 그것을 創造한 人物을가지고잇섯든게다。그善人物에比하면 歐羅巴를 政治的으로 處理해온 사람들은 훨신떠러진것들이다』라고。

事

件自體로도 뭣보다도 政治的인事件이 皮相的인것은 事實이다 또한『아랑』의말과가티 그것은 條理가업는 行爲다。그러나 다음에 오는 重大한問題는 그뒤에『아랑』이 添付한—政治가 뭣인가를 그自體로서 나하지는다—는事實이다 重大한것은 그政治行爲가 남기는 偶然的인것이 契機가되여 우리들에게 瞬間的인 叡知의 閃光을 던지는 事實이다。그리하야 深遠한 文化의問題는 그 皮相的이요 條理가 업는 政治的인行爲에서부터 시작되는것이요 展開되는 것이다。

朝鮮古典文學管見

=特히『春香傳』을圍繞하야=

⑧ 徐斗銖

우에서말한바와가튼 어떠한本質은 外來的要素咀嚼에 그냥服膺을흘리고잇다。보라 高橋先生께서 어떠한豫定的成心으로이라고도볼수잇게스리『李朝가되여서만흔學者들이지은 雅爲와가튼것도 傳해져잇스나 太半은 漢詩의崩이여서 國歌로볼수는업다』하엿스며 或은『支那의文化에 隸屬하여잇든 文化的從屬性의强度又以上』(新羅新以日本文學講座의『朝鮮文學硏究』에서)를 말하엿슴이 外來要素 換言하야 支那的要素가만헛다함을 意味함이라면 얼마間의 修正을 加하야 採擇하여야될만치 支那的要素가만타 그러나 氏의 文學定義가 좀 古色이蒼然하고 또氏의 論文이 距今十年前일이고 그동안어떠케상각이 달러젓는지 알지못하므로 이에 말을부치기를그만두고 如何든 이러한 外來要素가 어떠케春香傳에서는 料理되여잇나。

다만 하나 儒敎的要素를든다— 이것이 第一지든기도하다。儒敎는 非單 春香傳에限할것도업시 朝鮮에잇서서 짜장 朝鮮의問題이지 儒敎의課題는 아니라고보여진다。卽 우리의生活이 그대로 儒敎的이엇스매 잇다는말이다。새삼스럽게 實例를드디면우리네自身에 對한變態라할만큼 이미알리워저 잇는일이아니냐。그것은 어디 敎理的思想的으로뿐이가。그것이가저지는 이모저모의 모든要素가 그의根本觀念을길러지고 隱綱自在히 神出鬼沒하고잇다。元來 作稿이 엄병한지라 生活을擁護한 儒敎的思想은 드디여 本來의生活파 融解되기前에 生活이 그속에 이끌려드러가 말고잇다。발그어말하자면 外部로부터 이따의古典文學에影響하기前에 그네의 모든 體驗이 儒敎的表現을 仲介로하야 이루어저버렷스니 遺憾된일이나 그러나 春香傳이 나라낫을때는 이미儒敎그自體가 呪術的으로때로는 어떠의 心魂에 작겨잇서儒敎가 儒敎로서의 新鮮한活力을 가지지못하게된때이니 닥쳐올實노리고잇슨 實은死를 發하려하는 當時에서 離脫하려는 要動이 제스스로는 깨닷지못하는바이어 [illegible] 다 卽 [illegible] 가저온것이다 그한表 [illegible] 스스로히 [illegible] 뜻이 업서 [illegible] 行動이다 [illegible] 自然하게 外來의 要素를 自己네式으로 구미에맛추려고는 아니하엿다 [illegible] 리라하엿다 [illegible] 假說에 안해가미뻔면 [illegible] 무어하다는格으로 一個의 文學 [illegible] 自然의 [illegible] 文字의 幻影속에 더욱이 中華中華하든不中華이엿다 [illegible] 찾기까지하엿다 그리고 能히 [illegible] 다 이것의結果로 [illegible] 논아직 [illegible] 못하고잇다

漢語適用의功過

問題는 우와關聯된다。나는 內容의表現인 言語에關하야 非單 春香傳뿐만이 아니오 實로 이따의 古典文學—便宜上 이拙論에선 韻文으로 된것을 主體삼어잇다—에 잇서서는 重大한 考察點이 이漢語乃至 漢文的表現이 되여저도 無妨타한다。生活의 言語와 文章과 참되히 아름다운 結合은 生活과 文學의 接近度에 比例해定해진다。

新刊評

燦爛한童心의世界

兒童文學集評

李軒求

지극한정성이잇고 지극한사랑이잇다면 그것은 어린이를위하야 바치는정성일것이요 또 어린이의 마음에서 찾는 사랑일것이다

朝鮮서 어린이를사랑하자는運動이 일어난 十六年前부터 어린이를위한文藝運動이 全面的으로 노파저왓다 勿論그以前에 兒童을 위한文藝作品으로『검둥이서름』파가튼 훌륭한外國小說이 꽝장히 그때의어린이였든 우리를 울렷섯다 그러나 어린애란 말을『어린이』라는 하나의 人格을가진言語로써 새로운社會的倫理를 樹立시키면서 오늘에 이르는歷史는 正히 十七年이다 그리하야『童謠』의世界를 거치지아니한 오늘의詩人이나 小說家가 업슬만콤 한때는 安莊히도 童謠熱이 旺盛햇다。인제 이번 刷刊된 新選文學全集第三卷인『兒童文學集』을 펼치노코보니 實로 거기엔 感激이새롭은 가지가지의 노래가 꿈게여거저잇다。

朝鮮兒童文學의 宣言하야 一生을 바친 故小波方定煥氏를비롯하야 五十餘氏의 童謠、童話、童劇、少年小說等 한가지로 어린이의 마음의糧食으로서뿐아니라 거츠른現實에서 童心을喪失當한 어른들에게있서서도 恒시情다웁고 親近스러운 마치 떠돗한봄날의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든 淡淡하고도 微笑에넘치는 情緖의마음을 느껴진다。

『꾸른하늘 은하물 하얀쪽배에……』의 이노래가 全朝鮮坊坊曲曲 아름다운멜로되를타고 도라다니든때와 徐德出君의『봄편지』의 눈물겨운 記憶도 또한 이文學史를 意識하야 새로워진다。더욱 小波의『난파선』은『사랑의선물』의첫머리에 노혀서 오늘은 三十이된 어른들의 感激을 짜내든 兒童文學史上의 名作의 훌륭한例의 하나이다 그리고 高漢承氏의『無窮花 이야기』도또 한가장無難한 兒童書籍이다 단한가지의所望을한다면 이冊의 活字가 더굵고 사이사이에 더만흔 이쁜그림이 함게 끼여저 잇엇다면 이한冊은 한결 훌륭한 兒童書籍이 된것이다. 朝鮮에잇어 더한층 비낫슬 것이다 玉에도 티가잇고 또한그러한出版에는 多大한物資를 要할것이매 鄭玄雄氏의 커다란 裝幀으로 이만큼 아담하고 아름다운 冊으로 꾸며진것도 우리는 한가지로 장하게 생각해야할것이다

漢詩

題 新京

押 人

桐岡考選

佳作之一六五

靑陽郡邑內里 雲齋 李來濬

金宮白帝向西巡
造化神鞭退火輪
蟋蟀亂鳴催換節
梧桐初落報淸晨
快如破敵兵還國
爽若參禪佛幻身
天賜無聲無臭藥
更蘇病暑發狂人

【杏=林=小=話】

눈물

(下)

趙漢英

그러면 이와가치 人生生活에 잇서 不可分의 關係가잇는 눈물의 價格은 어떠한가。

人間의排泄物中에 尿와糞은肥料로使用한다。그래서 時價에딸아賣買한다 또 人間의血液은重症患者의治療上必要한 輸血에使用하기爲해서 給血者와 受血者間에 賣買가成立된다 그價格은 血液百〇〇에얼마씩으로 作定되여잇다。그러나 아즉 눈물그것을 賣買햇다는말은 듯지못햇다 눈물의分泌量이 元來少量인데다가 눈물그것만을 有効하게使用하지안키때문일것이다 萬若 疾病의治療上이래도 눈물이必要하게된다면 그때에는 눈물100에對해서 얼마라는價格이 부를지도몰을것이다 그러나 아즉눈물의價格이 서잇지안은지금이지만은 눈물의價値는 零에서 無限大에이를것이다

酒黨中에 맷잔술을마신後에는 아무理由업시 習慣的으로 눈물을흘리는親舊가잇다 또映畫나劇을求景할때라든가 小說을讀하면서 甚하게 涕泣하는善男善女도 만타 그러나 이러한눈물은相當方이假裝的이까닭에 無害無益한것이니그價値는(十一)〓零이다。

또때로는 敷滴의눈물이 劃然하게利害關係를 左右할때가 매우만타。一例를들면 ×란이잇서서 일하는Y라는사람은 눈물을갈흘리는 所謂多情漢이다。自己의過失로因해서 難處한 境遇를當할때이면 ×압헤가서 悔悟의눈물을흘리면서 容恕해주기를 哀願하엿다。그런데 ×亦時感傷的人物이여서 아모리 激奮할때이라도 남의눈물을보면 곳百八十度의 心的轉換을 이르키고야마는 터이라 Y의눈물은 百%의 效果를나타내군하엿다 假令Y의 月給이百圓이라면 한번흘린눈물은 每個月百圓也의 所得을 나타내는것이겟다。그러하지만은이러한 打算的눈물은 그價値에잇서 零에갓갑다。

얼마前에 나는O모임에가서敬愛親友와가티 晩餐을즐겁게하엿다 모다 卒醉에이르럿슬때이다。『여보게 O君 내가자네에게請할것이잇는데 꼭들어 주리라고 밋네 오날의 자네의榮譽는 모두다 자네父母님의恩功이아닌가 그러하니 이자리에서 자네父母님께 절을드려주게』라고 P兄이말하엿다 이얼마나 아름다운讚이며 純實한友情의 發露이냐 O兄도 여기對해서 異議가잇슬理는少毫도업섯다 도리혀 欣然히 곳兩親에게 절을드렷다 同時에 感激의눈물을흘렷다 同時에 坐中도 모다 同感의눈물을흘렷다 이얼마나 아름다운눈물이냐

이러한友情의눈물이란든가 父母兄弟間의눈물 또는 師弟間의 눈물과가튼 利害를 超越한非打算的인 神聖한눈물이야말로 그 價値는無限大의것이다

그러나 世間에는 남을害하고 社會에害毒을끼치는『거짓눈물』이매우만타 이러한눈물은百害無益한눈물이니 그價値는零以下이다

눈물은 우리의눈을 保護하는 作用이잇는것이니까 保健上 必要不可缺의것임은 勿論이다。

또 눈물을흘리며 啼泣하는것은 人間에게만 限하야 可能한것인데 初生兒時代에는 아즉울어도 눈물이나지안코 母親을認識하기 始作할때 卽出生後三個月서부터야 비로소 涕泣하기始作하는것이다。

그러나 動物界에는 涕泣이란 全然 不可能한것이다。이와가티 自然은 萬物의靈長인 人間에게 限해서만 눈물을 준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一滴의눈물이라도 價値잇게 흘리여야겟고또는 적어도 零以下의 눈물에 誘惑되지안토록 銘心해야 할바가 아닌가。

新刊紹介

▲鑛物의피 上卷 朴[illegible]著 現代傑作長篇小說全集 第六卷

(內容)長篇小說、[illegible] 發行所 京城府[illegible] 振替京城[illegible]二〇三三番

▲農民生活 十二月號 發行所平壤府[illegible]三九 農民生活社 振替京城四八五二番 定價十錢

新人短篇

이랑이 (十四)

朴魯甲 作

崔根培 畫

요모양으로 가다가는 자식소학교 좋업도 못시킬테니、벌벌이나 하는 친정으로 가서 떼를 써서라도 자식 하나 가르처 노코 보다는 것이 이랑요로는 엉터리 업는 생각도아니엇다。

그러나 섣붓 친정으로 갈수는 업는것이다。

이러케 일년을、또 지나지안헛는가!살림사리는 점점 끝이안되엇다。

이때 이랑의 친정에서는 딸를보아지라는 이랑 어머니의편지가 사돈 마님에게로 왓다。

이때 이 기미를 아시아버지 그는 가엽슨 며누리에게 하소를 하엿다。

『어린놈을 다섯살만 먹여다오 그다음에도 더원할 인정업는 사람도 나는 아니다。』

라고 당신은 말하엿다。

『네 아식 새파랏케 젊은것이 장자도 몰을 어린 저것하나를 밋고 어떠케 산단 말이냐!』

『…………』

이랑은 역시 눈물만 먹음고 이런에도 아무런대답이업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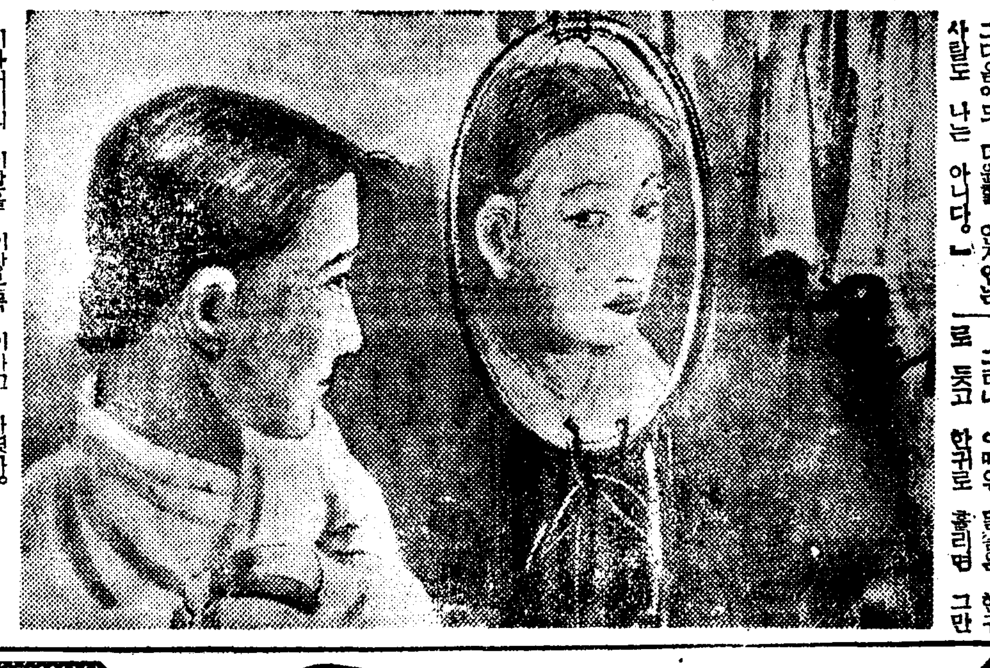
그뒤로 한달뒤에 어머니의병은 쾌차하엿다。

동내 마누라들이 와서는 인사도하고 의론도하고 귀찬케굴엇다。

『아이구 나이도 아깝지만 얼굴도 아깝지! 세상에 저러케 예쁜 얼굴을 가지고 원!』

그중에 제일 듯기 실흔것은 이따위 말이엇다。

그러나 이따위 말을흔 한귀로 듯고 한귀로 흘리면 그만



시아버지의 이말을 이랑은욱하니 들엇다。이랑은 생각 하엿다。

(내나이 너무 젊은것을 염려하시맘슴이리라!내 어찌 천하의 박색이 못되엇든고!

세상 사람들은 두번 시집가는것을 부끄러워 하엿다。그러나 갈 사람은 결국 가고야말지 안헛든가!할머니와가튼 분이 며칠이나 된고!할머니도 만일 좀더 젊으섯고좀더 어엿뿌섯드면!

세상의 꾀임을 바드시고 한으시느라 욕을 보서도 더보시지 안으섯다 장담을 할수 잇슬까?

모를 일이다。시아버지 께서 나를 못미더 하시는셈이 어찌무리시랴!그러나 그러나…)

이랑은 몃달 동안 시집에그대로 잇섯다。

친정에서는 다시 사람이 왓다。친정어머니의 병환이 중하다는것이엇다。

이랑은 서슴지안코 가기로하엿다。

이랑은 시집을 떠날때 자기는 븨븨한것으로가서 어린것을 걸러가르치 보겟노란 말을 시부모에게 고하엿다。

그들은 눈물을 먹음고 허여젓다。

이랑이 친정을 와보니 어머니의 병이 그리케 중하지는 안헛다。

당신의 이병도 다 딸때문이이라고 하엿다。

아이의 자라는 것을 보고이해 겨울도 방 속에서 보내엇다。

어느듯 방에만 잇스면 답답한 생각이 들게 되엇다。찰쑥나부 순이 꿈게 꿈게 도다낫다。세상은 완연한 봄이엇다。

담 미테 각시풀이 파리케업리엿다。

먼산 아지랑이를 바라보고마루에 서서 봄을 의망 하든이랑은 갑자기 전에 업든 생각을 하엿다。

(아、청되이 보내는 나의 청춘은 파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랑은 다시 머리를 흔들엇다。

(내가 미첫는가 이 무슨 쓸데 업는 생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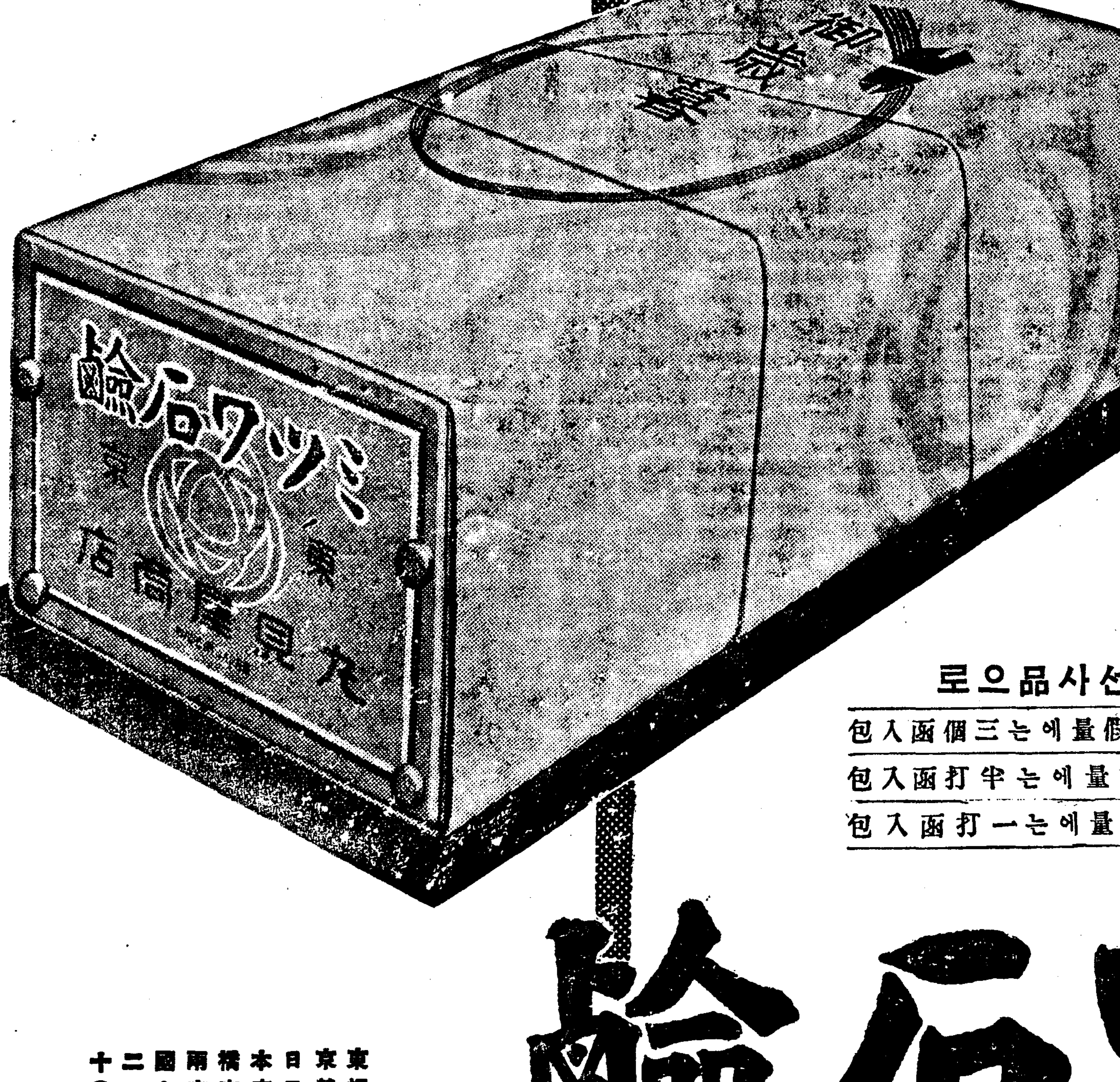
이랑은 들어서 방으로 가려다가 건너편에 걸린 거울을보앗다。

거기에 비친 자기의 얼굴은 너무도어여뻣다。남편을뒤로 떼오란동안그는 이러케거울을 드려다 본적이잇든가!

병에걸린 처경이니 지나다혹 보앗기로 이러케자기 얼굴이어여뻐보이가 요얼마동안 잇섯든가!

이랑은 혼자 놀래엇다。

이랑은 방으로 뛰어들어가 자는 아이빰에 얼굴을대고 몸엇다



가장良心的인國產의最高標準品

선사品으로
五十錢假量에는三個函入包
一圓假量에는半打函入包
二圓假量에는一打函入包

ミツワ石鹸
미 쯔 와

東京日本橋兩國二十
振替口座東京一七一〇
本舖 丸見屋商店

004204

安心하시고드릴수잇는
繕物은ミツワ입니다
親分잇고品位를가주운
繕物은ミツワ입니다
時局에適合한實속잇는
繕物은ミツワ입니다

十二月一日晝夜特別興行 大衆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 每日三回興行 一時 [illegible] 三回七時
米國리퍼블릭映畫社全發聲日本版
海底下の科學戰
구라시 고리강 主演
두이스 우일오도 은도부루— 助演
[illegible]社超特作全發聲 西部劇怪活劇
怪奇の殺人
[illegible] 키네마社超特作全發聲
山本嘉次郎 監督
彌太つぺ月夜鴉
大河內傳次郎 主演
次週豫告 [illegible]
第一劇場 電光 一七五五

十二月一日부터三日까지
每日晝夜二回 낮一時 밤七時始映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讀賣ニュース ◇パテーニュース
◇松竹映畫社
人肌觀音 前篇
小島政二郎氏 原作 主婦の友連載小說
◇京城映畫社提供
新版 鐵人都
監督 [illegible]
主演 [illegible] 金蓮實 李源鎔
◇RKO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聖林裸道中
監督 레이 제[illegible]氏
主演 진 레이몬드 뷘더 이바러스
次週 花籠の歌 [illegible] タザン再現
特別豫告 八日부터總天然色大森林 乞期待
桃花町 電話龍山 [illegible] 桃花劇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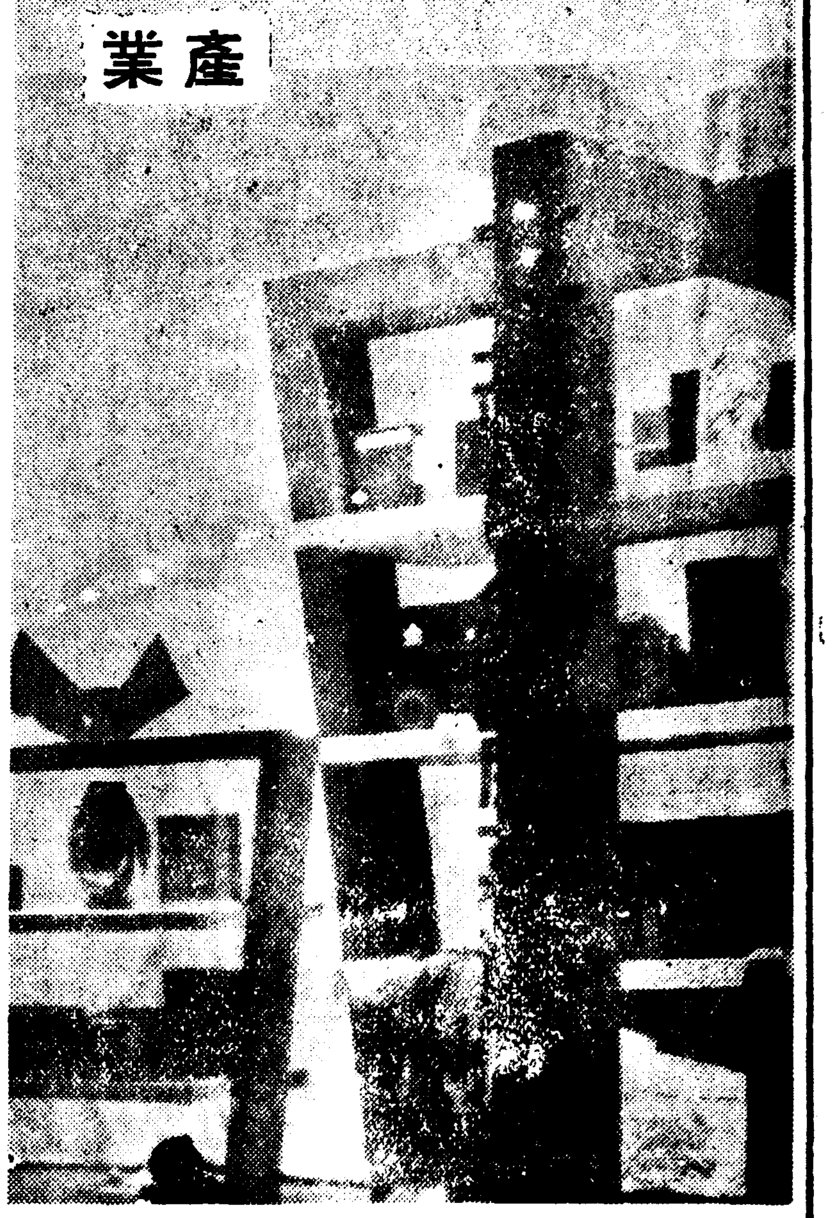
◆靑春座公演◆十二月三日밤부터
男女七歲不同席◆
李瑞求作 ◆마음의眞珠◆ 二幕
[illegible]

流浪三千里前後篇大會
◆劇團豪華船全員總出演◆
入場料 五十錢均一
府民館에서 問題의歷史劇 十二月十日부터三日間
完全冷暖房 東洋劇場 電③ 2154(劇場現場用) 3640(事務室專用)

十二月一日부터三日까지
每日晝夜二回 一時 七時始映
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大衆料金
◇讀賣ニュース
パテーニュース
◇林守浩映畫社提供
임자업는나루배(主なき小舟)
監督 李圭煥氏
主演 羅雲奎 文藝峰
◇東寶映畫社特作品
富士の男伊達
主演 羅門光三郎 [illegible]
부령시바로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라—산의再現
◇次週 總天然色大森林 戰國一番侍 東人爆笑隊 パテーニュース
京城新堂町 (電話本局) 五〇七七番 新富座

劇團『靑春座』公演 [illegible] 晝夜二回 晝一時 夜六時半 [illegible] 三十錢均一
半島劇界에 二大센세이슌을 일으킨 問題의大傑作 裁判劇
金振門 力作
『法廷에우는白花』 4幕2場
悲劇 再生花 1幕
[illegible]
文藝部編
[illegible]
光化門 三四九二番 團成社

産業



歲暮景氣打診!

今年의贈答用品은 實用品이大多數

一般購買力은良好

드되여 歲末도迫到하야各商店의販賣對策은 時局上特히 愼重한秘策이 考究되여잇는데 物資統制로因한 商品의仕入問題 虛禮廢止 消費節約의一連으로 贈答用品賣出의 前景氣의豫想困難으로 저으이念慮하고잇다 特히歲暮贈答用品의賣上은 年末商店에 적지안흔重要性을 가지고잇느니만치 業者의關心의 어에中心이되여잇스므로 京城商街의傾向을 打診하기로하엿다。

現在까지의 各市場과 消費層의氣圍氣는 大體로 例年과大差가업는賣上이 期待되여잇다 이것은 오직事變에도 움즉임이업는 國力의充實을 證左하는것으로 商品에나타난 購買力은 變함이업다。

그리하야 무슨商品을準備할것인가는 歲末對策의 考究、商品仕入의妙策에잇다。그런데 무엇보다도 物資不足에依한 一般贈物贈答品이라도 價高로 가는 贈物贈答品이라도 昨年과 今年은 價格에 非常한 變動이 잇서서 商品보다도 먼저 價格으로 選擇되지안흘가하야 贈物은如何히하야 消費者의要求에 合致케할가의研究가必要할것이다 그러므로 今年의歲暮에잇서서 商店은 經營上從來와 다른苦心이잇슬것은勿論이다 그래서 年末前景氣를보며 가진秘策을다한 商街의 販賣對策을 打診하기로 하자

윈도-쎄일

百貨店의 歲暮商戰開幕

京城市內의 商街는 歲暮를압두고도 아직戰時下의 自肅을 직히고잇섯스나 아무래도 歲末의 賣上은 商店經營의 重要한 地位를占하고잇느니만치 百貨店도 亦是沈默을 지키고잇슬수업서 지금까지의 自戒를깨트리고먼저三越에서는 十二月一日부터朝鮮內에서는 最初의 試驗이라는 『윈도-쎄일』로 華麗한 商戰의序幕을 열엇다

『윈도우세일』은 即 鮮銀前廣場에面한 三面의 윈도우에서 背景을 全部除去하여버리고 單純한 從來의裝飾窓의 意義를떠나 賣場의 一部로하는것인데 박게서보아 조타고생각하는것이면 드러가서 곳사갈수잇는 程度로 陳列方法도 一變하야 賣場의一部로하는同時에 一枚에千圓이나하는 硝子를通하야 外部를 充分히內部에 誘導할수잇도록 한것이다

實用品을主眼으로 奢侈品은一掃

和信 販賣課長 談

年末景氣는 例年과 大差업다고 보는것이 驟當할것갓다그래서 一般의 購買力도 適히不良치안흘것가트므로 年末對策으로서는 從來의 景品附大賣出은 今年은 時局關係로中止하게되엿는데 그대신 어떠한 對策으로 販賣를 誘致할런지는 아직具體的案이 樹立되지아햇스나 消費節約、物資愛護의 當局의趣旨에 順應하야 絢爛한 宣傳과 購買心을誘致하는等의 宣傳方法은 쓰지안흘것이다 그러므로 年末贈答用賣出은 우리商店에서는 可及的奢侈品은 一掃하고 實用的이오 經濟的인 商品을選擇하야 供給하려하며 代用品에잇서서도 實質的으로 完全히代用될만한것도 업슬뿐아니라 아직一般이代用品을 充分히理解하지못하는關係도잇슬것이나 要컨대時期가 아직도그러케 代用品을必要로하지안흐면아니될 그러한時期에는 迫到치안핫스므로 需要者에게必要한實用品을 主眼으로 奢侈品은 一掃하려한다

『써-비스』로 局面打開

(寫眞은三越의윈도-세일賣場)

德永 李昌基氏 談

今年歲末은 劃期的인意味를가젓다고할수잇습니다 그래서 從來에 實施해오든 景品附大賣出은 國策에 順應하는意味에잇서서 斷然廢止하기로하엿는바 一般大衆의購買力은 例年에比하야 大差가업스므로顧客의 購買心을 誘致키爲하야 取해오든華美한 裝飾가튼것을避하는同時에 거기에 必要한經費를 節約하야 될수잇는대로 比較的低廉한 商品을顧客에 供給하며 昂騰된物價를 親切히 說明하야 보다더 緊密한써-비스로 이局面을打開하여나갈가합니다

景品附는廢止코 奉仕大賣出

買上一圓에五錢씩減해준다

京城商工協會

京城商工協會와 京城商工組合聯合會에서는 今年은時局關係로景品制에依한 大賣出은廢止하고全市歲末奉仕大賣出을 來十二月十日부터 同卅一日까지하기로決定하고 其方法으로서는買上金一圓마다 五錢씩參加店共通의奉仕品引換券을贈呈하야 任意의必要品과바꿀수잇게하엿다 그리고各商店의 宣傳方法도華麗한것은될수잇는대로避하고 時局에適應한裝飾으로써 賣出氣分을惹起誘導하기로하엿다하며 百貨店聯盟에서는 아직具體的決定을보지못하엿다고한다

鐵嶺縣서 叺五〇萬枚生產

今般滿洲國政府에서는 여지것外地에서 輸入하여오던叺袋를統制하고 國內副業獎勵의 見地下에그代用容器로 叺을全滿的으로生產하야이를補充하여 需要에應하도록決定되여 各省에配定한바奉天省에서는 配定받은數量叺一五〇萬枚中 鐵嶺縣에五〇萬枚를 配當하여 生產토록하엿는데 이것을縣農事合作社에서 統制하야來三月末日까지 全部끗매을計畫을 樹立하고 지난二十二日 縣下農務契長會議에서 各契長에게傳達하엿다 收集은來十二月二日부터鐵嶺市新交易場 沙阬子安全農村 農務契聯合會、新臺子交易場 大甸子實行合作社의 四個所서보매 配定數五〇萬枚中約八割이 同胞의손이로 生產될것으로 豫想되

咸北魚粉不振

─國內外의條件不利로─ 當分間은好轉無望

【咸北支社發】咸北道內의 魚粉製造商은 今年들어 米國等地의 新市場도 開拓되여 적어도 十萬噸은 될것으로 豫想하엿는데 道內鰯漁의 中斷과 內外國의 市況不振으로 겨우七萬噸을 넘지못하게 되리라 한다 最大의消化地인 獨逸行이 米國行보담 十噸에 約三十錢이나低價로 三菱淸津出張所에 達한情報에依하면 魚粉의 外國市勢는當分間好轉키어렵다한다 一方內地市場에잇서서도 咸北產粕만은五圓七十二錢이나되여 活氣를띄우고잇스나 그反面 魚粉의價格은 자못不振狀態에 잇다한다。

酒類製造

講習會開催

【忠北支社發】濟州酒造組合에서는 同組合主催로 濟州、旌義、大靜等各郡의 酒類製造業者約二十名을 集合케하야 오는二十九日부터 十二月廿三日까지 濟州酒造會社樓上에서 總督府 森、崔兩技手를 講師로招聘하야 酒類製造講習會를開催하기로되엿다한다 同講習會의開催目的은 酒造業者의技術을向上시키는同時에 優良한술을釀造하야 一般消費者에게 供給하자는데에잇다고한다

務安郡薄荷

例年의半作에不過

【木浦】務安郡薄荷耕作은 作付段別三百町에 一百十町步로 例年의 半作에 不過하다는데 本年의 作況은 大體로 不良하야 出廻에잇서서도 例年에 比하야 不少한 減收를 보게되엿다한다

十月中의淸津手形

交換高

【咸北支社發】淸津手形交換所十月中의交換枚數는七千三百九十二枚 金額六百二萬四千四圓三十九錢으로 前月에比하야 枚數에잇서서 一千五百八十八枚金額에잇서서 九萬四千五百七十二圓五十六錢이란 驚異的 激增을 示하고잇스며 同月中 一日平均交換枚數二百二十一枚 金額二十六萬一千七百四十一圓〇六錢이라한다

木浦繰綿檢查高

四十一萬一千斤

【木浦】木浦繰綿檢查所의 二十日現在繰綿檢查高는 四十一萬一千二百五十三斤으로 全部一等綿이라는데 工場別로보면 朝鮮棉花가二十二萬五千二百二十斤 全南棉花가一萬八千二百六十七斤 南北棉業이 四萬九百三十八斤이라한다

우리地方의名產자랑③

高山乾柿의 今昔譚 (五)

全北支社 一記者

주인을 부르는것보다도 보지못하던 손임이 왓다는것을 예고하는듯 짓는 개소리를 과하여가면서 곶감을차저드러가니 水滿里에서 곶감을 일허버리고 哀慟하는幽靈을 차지못하는것이여 기에서 今年에 곳감을엇게되고 유감을시처 버리게되엿스니 그것은자기아버지나 혹은 남편이 기픈山麓岩石壁에서잇는 감나무에서따오는감을 이고장 處女와아낙네들이 히미한따ㄱ불을 들녀차고

瞬間放心도없이 감을깍고 잇는정경은 평화그것뿐이고 모든것을 다이저버리고 作業에 熱中하고잇는것은 純情과勤儉박게남어 엿는것이 업는듯하엿다 어쩌면 處藥에 사로잡히기쉬고 好奇心이 生活全體를 支配하기 쉬운 處女들에게 이러한 情境을한번 보여주엇스면 하는생각이 드러 감을 마음속에 감추어두면서高山乾柿製造에 대한方法과 苦心談을 듯기로하엿다 강애는 여러가지名稱과 種類가잇스니 그것은 아래에서 仔細하게 紹介하기로하고 여기서는 爲先乾柿製造에 對한 一般的方法을 紹介하기로한다 제일큰감을 가지에부튼대로 꺽거서 미리꼭지는 따지안코깍근다음 색기줄은꼬창이에다 줄줄이꽤여 매다음 (乾柿場의名稱)속에서 말린다 이것이 充分히乾燥된後 이른아츰 찬서리에 내노하서리를 마치고 만져주고 씨더듬어 손질을 하여주면 白粉가튼것이 감속에서 나오게 되고 甘味는 점점더 하여간다고한다 이것이 곳 改良乾柿의 製造法이다 그리고 在來式乾柿(섭곶감)은 山에서 따온감을 전부 깍근다음 차리나 무에 꾀여서 말닌후 개랑거지와 同一한 方法으로 손질을하여준다음 열개식접을지어팔게되는것이고 『꼬챙이감』이라고하는것은 제일品質이不良한것을利用하야 이상과가튼 工程을 겪근후그대로 販賣하게되는것이라

고한다 長長秋夜밤이 기퍼지는것도 도라봄여유가업시 친저녁서리를마저가면서 乾柿製造의 重大한役割을당당하고 純朴과勤儉그것을 벗삼고 꼿다운 處女時代를 보내는이 곳 處女와 아낙네들은 生產에 對한 趣味와 歡喜를 느끼면아니라 生產에 對한 趣味와 迫力으로써 家計를 세워가며 經濟的部門까지도 贍果하게 되는것이라고 하니 아버지 오빠할것업시 男子들이 山野에서 따온감을 比較的 閑暇한 밤時間을 利用하야 이것은 깍거달니고 이른새벽에 씨다듬어 손넛는것을 唯一한 慰安거리로하고 잇다한다 즉 一年에 한번식收穫하는이生產期를 通하야 未來의 살림사리를 準備하고 處女들의婚姻費가튼것도 이것으로써 充當하게되엿다고 하니 적은秀苦는 도라보지안는다는것도 當然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러갓다 이고장 여사람들에게는 最近 各方面에서 喚起되고 잇는 更生勤勞奉仕의 督勵는 一種經濟의 說法에 지나지 못할것이다 經濟的 產業的으로 自然條件의惡障을 벗지못하고 잇는이곳은 面民全部가 經濟的으로 豐富한生活을 하지못하고잇다 住民들의 生業으로서는 一般農作物을 耕作하고잇스나 甘藷가主食物이 되여잇고 감 朝鮮紙 숯등을 生產하므로써 經濟的融通의 主幹을 삼고 잇다 산과 산으로써 四方이 둘러차인 이地方住民들은 山에서 살고 또산에 全生計를 依存하게되는것이라 이山에 高山柿가 업섯든들 三面民의 生計는 우리의가슴 아프게하엿슬것이다

商品市勢 (三日)

▲果實類

品名	單位	價格	
梨(早生赤)	三貫五	[illegible]	[illegible]
梨(明月)	同	[illegible]	[illegible]
溫州蜜柑石油箱入		[illegible]	[illegible]
紅玉(鎭南浦)	四貫	[illegible]	[illegible]
同(大邱)	三貫	[illegible]	[illegible]
바나나臺灣十貫色付		[illegible]	[illegible]
葡萄(간)內地		[illegible]	[illegible]
同(마스캇)岡山		[illegible]	[illegible]
梨(二十世紀)內地		[illegible]	[illegible]
國光(大邱)	三貫	[illegible]	[illegible]
同(鎭南浦)	四貫	[illegible]	[illegible]
메론	一個	[illegible]	[illegible]
柿(富有)	四貫	[illegible]	[illegible]

▲海產物

品名	單位	價格	
乾明太新(元山一駄)		[illegible]	[illegible]
同(西湖津同)		[illegible]	[illegible]
同(退潮同)		[illegible]	[illegible]
同(前津同)		[illegible]	[illegible]
北海道乾明太	一等	[illegible]	[illegible]
同 小明太	一等	[illegible]	[illegible]
同猿面若目	百斤一等	[illegible]	[illegible]
乾大口(元山)	百斤	[illegible]	[illegible]
同(北海道)	百斤	[illegible]	[illegible]
烏賊魚	百斤	[illegible]	[illegible]
鹽蝦漬(새우젓)	一甕	[illegible]	[illegible]
生明太新入荷壹級上品		[illegible]	[illegible]
生鯖	百尾	[illegible]	[illegible]
生雄蟹	百尾	[illegible]	[illegible]

▲魚類

品名	單位	價格	
鹽古同魚百手上品 中品		[illegible]	[illegible]
新入荷生刀魚百尾大 中 小		[illegible]	[illegible]
(新入荷)新生大口	一箱	[illegible]	[illegible]
明太子新入荷一桶五貫 上品		[illegible]	[illegible]
明太子(咸南產)松印	一樽	[illegible]	[illegible]
同 竹印	一樽	[illegible]	[illegible]
同 梅印	一樽	[illegible]	[illegible]
江原道新乾明太入荷大一駄		[illegible]	[illegible]
中		[illegible]	[illegible]
메루치漬	一甕	[illegible]	[illegible]
鹽蝦魚	一個	[illegible]	[illegible]
生鮫魚(新入荷)	百級	[illegible]	[illegible]
生靑魚	百級	[illegible]	[illegible]
(統營產)鮑子 大羽十貫		[illegible]	[illegible]
同 中羽		[illegible]	[illegible]
同 小羽		[illegible]	[illegible]

▲菜蔬

品名	單位	價格	
松茸	百匁	[illegible]	[illegible]
百菜	十貫	[illegible]	[illegible]
玉葱十二貫入	一個	[illegible]	[illegible]
白菜	一貫	[illegible]	[illegible]
土蓮	同	[illegible]	[illegible]
甘藷	同	[illegible]	[illegible]
馬鈴薯	同	[illegible]	[illegible]
玉菜	同	[illegible]	[illegible]
酢豆若油箱	十個	[illegible]	[illegible]
長大根		[illegible]	[illegible]

(京城魚會社調查)

▲肥料 (十二月各市場) ▲農藥藥品 ▲農產加工品 ▲穀用叺及繩 ▲家畜飼料 ▲家畜類

品名	單位	價格	
石白、硫安、過燐酸、硫酸加里、安東豆粕、胡麻油粕、硫化燐安、加里安、過燐酸、安條加(現物)、地和化成肥料(現物)ほか		[illegible]	[illegible]
硫酸、結晶硫酸銅、粉末、生石灰、除虫菊、석회보르도、마른크레드、硝酸아미노、改良가제、砒酸鉛ほか		[illegible]	[illegible]
叺、麥稈眞田、柳朝鮮產、草、薄荷、乾繭、乾燥內地、棉實油、白絞油、乾蓮根、고사리、干瓢、番椒、麥粉、馬鈴薯澱粉、澤庵漬、柿、木茸、莞草、生松脂、栗虫巢、千切大根ほか		[illegible]	[illegible]
指定價一枚 京畿、群山、忠南、慶北、慶南、榮山浦、賣價全南、京畿、縄(叺縄)、穀用繩、荒繩		[illegible]	[illegible]
粉末配合雞用、雛用、中雛用、成雞用、三種配合、玉蜀黍、大麥、小麥、米糠、砂糖		[illegible]	[illegible]
鷄卵、豚、兎卵、鴨卵、生豚、生鷄、鵝、四季鳥卵、豚毛(原毛)、羽毛、雉、鴨		[illegible]	[illegible]

(朝鮮副業協會調查)

驚嘆の大賣行!!

第一別冊附錄

飛切り愉快誰にも面白い!堂々四百頁の豪華本!

評判演藝娛樂大全

讀んで樂しく見て面白く一冊あれば家中で樂しめる家庭面白大寶典!之一冊一圓以上の値打と大評判!

目次

愛國歌軍歌 昭和流行歌 明治大正流行歌 俚謠、小唄、端唄 滑稽かへ唄 漫談、漫才 落語 浪曲 講談名文句 芝居名せりふ 吟詠漢詩 映畫說明 淨瑠璃さはり 奇術種あかし 寸劇茶番 室内遊戲 出征軍歌

右の附錄は、面白いものなら何でもあるので戰地の慰問にはなによりだと益々大人氣!ぜひお早くお求め下さい。

朝鮮日報御愛讀の皆樣!

雜誌は新年號から讀むのがお得です

この大計畫を御覽下さい。奮發も奮發、全く驚いた大奮發

面白い安い爲になる!

何處でも大變な評判!

買ひ損なつたら殘念、是非々々お早くお求め下さい。

定價八十錢 送料十一錢

東京小石川 大日本雄辯會講談社 振替東京二九三〇

第二大附錄

便利で見易い實用形!

時局重要地圖

①支那經濟交通總圖 ②支那重要地經濟交通圖 ③滿洲國經濟交通圖 ④滿ソ東部國境詳圖 ⑤最新ソヴィエート聯邦全圖 ⑥ヨーロッパ洲全圖 ⑦中部ヨーロッパ明細圖 ⑧北部支那 ⑨中部支那 ⑩南部支那

日本一の地圖作者小川彥平先生が半歲で苦心完成、正確無比で日本に二つとない折疊式實用形便利地圖!これ丈でも一圓以上の値打と大評判!

この地圖が一つあれば、新聞を見てもラヂオを聞いてもトテモ便利!居ながらにして忽ち支那は勿論、世界が明るくなります。世間さらにある地圖と違ひ、十圖に分けてありますから見易くその上折疊式ですから携帶にも實に便利で全く今迄にない……と大評判!

二大豪華附錄つき

富士

新年號

二大附錄つき特價八十錢

横七尺餘縱八寸色刷で十圖に分けた重寶附錄!!

見よ!!本誌は面白い小說堂々二十六篇!!

面白い大問題の新連載三大傑作、初め、讀切り小說十七篇、舊連載小說六篇で本誌も素晴しい出來榮えです。

新連載 時代小說 新版天下茶屋 吉川英治 戰國末の武士道を背景に第一回忽ち大波瀾、構想雄大實に面白い!

新連載 探偵小說 地獄の道化師 江戶川亂步 死體を包んだ石膏像を繞り謎の彫刻家と探偵の大爭鬪手に汗握る!

新連載 時代小說 幕末十劍士 川口松太郎

現代小說 戀愛算術 菊池寬

現代小說 熱情の翼 竹田敏彥

家庭小說 岩に咲く花 小島政二郞

時代小說 柘榴一角 白井喬二

現代小說 曠野の火 加藤武雄

時代小說 三代盜ッ人宿 子母澤寬

落語 大災 三升家小勝

今月の運勢 高島象山 百發百中、誰方も御覽!

圍碁將棋の急所 瀨越七段 花田八段

明治名將傳 涙の乃木將軍 木村毅

▲現代小說 この子の父 加藤武雄
▲現代小說 浮草日記 大林清
▲時代小說 魅惑の宿札 大倉桃郎
▲讀物小說 仲人後學の記 佐々木邦
▲漢口一番乘り 柳田決死隊長 清閑寺健
▲現地報告 挺身宣撫員 山中峯太郎
▲軍人の明星 光明街道 鈴木彥次郎
▲時代小說 雷專左 目黑麥男
▲山窩小說 帶解けお喜美 三角寬
▲股旅小說 甲斐路の雁 野澤純
▲實話 盲目僧女の復讐 原田銀二
▲探偵捕物 痣の受難 本堂竈步
▲美女出世奇談 まるめろ獻上 陸奥城川
▲小次郎助太刀 孝子の仇討 神田山陽
▲殺人劍活人劍 劍槍御前試合 東方白山

代行機關을設置코 緣故民便益圖謀

公有水面冒耕調査·貸付手續等을代行

黃海道當局의大英斷

【載寧】공유수면(公有水面)하천부지국유임야등을 무허가로개간하야 근근히 생활을 하여가는 농가들위하야 모경지 급연고자와 연고자등을 조사하는 한편 그들로하여금 출원케하야 그들의 소유토지로 맨들려주고저재령에 대행사무소가 생기엇다 즉 재령군내에 산재한 현재 모경면적은 양유십여정보를 돌파하야 관계인원은 일천오백이십인을 넘기고잇다 모경자들은 대개가 무식계급에 속하야 출원수속에 관한지식이 업는관계로 피땀으로 개간한 그옥토를 이권뿌로커에게 빼앗겨 일조에 생활의 근거를일코 방황하는자가 불소하므로 도당국에서는 이에 뿌로커를 일소하는일방 모경지를 진정한 연고자를 차자주고저 여러가지방법을 강구하고잇던나머지 요지음이가튼 대행사무소가 설치된것이라한다

代行事務所主任 趙駿九氏 談

지금 이기티 측정간접 문제를업는 조사를하고잇는데도뿌로커의 떼ㅣ마가 비화하고잇습니다 과거 도에서 일년에한두번 탐이 만앗슬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재령은금년에 못날보양이레다 그후는 봉산(鳳山) 황주(黃州)로 할것입니다

經濟警察運用次 業者座談會開催

【春川】전시하에당면한 경제경찰에대한 협의차로 전조선보안과장회의에 출석하고도라온 강원도 대서(大西)보안과장은 그요지를 각업자에게 주지시키며 국책에순응하도록 철저한지도를 목적으로 좌담회개최를 계획하고잇는데 이에참석할인원은 다수임으로 도에서 한번에갓맛칠는지 구역을나누어 개최할는지 구체적안을세우는중으로 금년내로 개최예정이라한다

그중에서 봉면정목리(鳳..里)사는 김문국(金文國)(..)이가 잠견하야 지금은 사촌인간이 누군인가 나서라함으로 전기 이운경이가 박그로나오며 밝게드러와간 복부를 차ㅅ던바 이것이 도화선이되여서 전기김용국은 기간에 홍성(洪城)도립의원에서 입원치료중이이바 지난이십팔일에 필경 사망하엿다하며 시체는사망인의 자택으로 운반하엿다가 지난일일에 보령경찰서 이사법주임이 주원(秋原)량의를 대동하고 현장에 출장하야 해부를 하여보앗다하며 가해자인 이운경은 수일전부터 보령경찰서에서체포하여다가 방금취조중에 잇다고한다

東海岸巾着組合서

鰮區紛糾白熱化

還元을又復陳情

總督外四道知事에게

【咸南支社發】함북어장의독립구를 철폐하야 달라는 것은 전번에도수차진정까지하엿스며 함남이남사도의 온어업자들의 사활문제라고 총궐기하야 그수세가 자못주목을 끄을고잇는데 이번 또다시·동해온어건착망어업조합(東海巾着網漁業組合)의 조합장 좌좌목준삼랑(佐佐木準三郞)외역원들 연명으로 장문의진정서를 총독을비롯하야 함남등사도의지사에게 보냇다고한다 이내용은 이사도의 건착망업자들은 금년에와서 일천평균칠천동의 어획을보며 함북의삼만통의 사분의일에불과하며 벌써 일천평균이 만원내외의 결손을보며 파산에 직면하고잇는 업자가퍽만타 그러므로 이대책으로는 『昭和九年以來漁區를 咸北及咸南以南의 二區로 나누어잇든것을五道를 同一漁區로 還元操業 시켜달라』는것을드러 진정하는바이며그 이유로는 온어는 회유성어족이라는것 수산업의원칙에 의하야 지당하다는것을 열설하얏다 이운동은 금후더욱심각화할것으로 그추이는 더욱주목된다

保寧에傷害致死

【保寧】보령군청소면장곡리(長谷里)에서는 사소한일로차다 지난이십일 오후여덜시경에 동면진죽리(眞竹里)사는 문종철(文鍾哲)방에 그부근사는 이운경(李云京)(..)외일명이 놀고잇슬지음에 집뒤로 어떤사람들이 떠들면서 지내감으로 문종철이가 말하기를밤중에 어떤놈들이 떠들고 다니느냐고 말하엿던바

八個教會聯合으로

江西地方會盛況

各教會代表者百餘名會合

【江西】강서읍내 기독교감리교에서는 지난이십팔일부터 제일회지방회를 당지예배당에서 개최하엿는데 군내팔개소에 감리교신도수만명의 대표자 백여명이 집합하야 삼일간에 대성황을 이루엇는데 금번회의에서협의한 것은 증산면본교회(甑山面本教會)에서 신도는수백명에달하나 아직까지 빈약하야 전도사(傳道師)가 업슴을유감으로 생각하야오던바 금번에 강서지방회에서 매년구십여원을 보조하야 부인전도사를배치케하엿고 또 명년오월삼일에 개최될 전조선삼부기독교연합대회에 출석할 대표두명을선거하엿다 그리고 교회발전책과 여러가지 중요사항을 결의하고삼십일에 폐회하엿는데 강서조유의 대성황이엿스며 연합대회에 출석할대표는 다음과갓다

江西教會代表 崔貞祥 朴瑞龍

十四個의株式會社로 대호텔을 건설키로 대체성안이된 모양이라고전하는데 중요문제인 자본금십오만원의 반은을 출자하겟다는 대주주의의견도 양해가성립되엿슴으로 잔액 칠만원공모뿐이라는바 건물은 연와(煉瓦)삼층으로 하리라고하며 기지문제만결정되면 잔액공모에 착수케될것이므로 대망의 대호텔건설안은 의외로속히 실현될듯하다고한다

鎭南浦에

大호텔을計畫

【鎭南浦】대진남포건설을 압두고 방금 각지에서 진객의내왕이 빈번하고잇거니와 진남포에는 아직도 그와가튼진객을 마지할만한 설비가완전한 여관한개가업슴을 유감이라아니리 진남포발전상 막대한관계가 잇스므로 식자간에는 벌써부터 대호텔건설계획이 대두되여잇던바 진남포상공회의소에서 앙연리에 준비공작을 하야오던결과 총자본

釜山에工業學校

來明年度에實現期必

【慶南支社發】시국의 파도에따라 조선의관문인 부산부는 점차 공업도시화해가는데 이에경남도에서는 『공업부산』에 상부한 공업학교(工業學校)설립을통감하고 지금 준비공작을 적극적으로 하는중이다 즉명년도인 소화십오년도에는기여히 설립하도록 만반준비(萬全)행중인데 불원에 부산부내의유력자를 모아 공업학교설치에대한 협의를 할모양으로 그회석에서 기성회가튼것을 조직할듯하다고하는데 이에대하야 경남도지사는 다음과가티말한다

부산에 공업학교를 설치하는문제는 부회, 상공회의소에서 열심히 요망하고 잇는데 그요망에 부하고저 명후년도에는 기어히 실현시켜볼작정이다 그래서 불원에 부산의 유력자를 모아서 이에 대한 협의를 할작정이다 공업학교 과목 선정에 대하야는 부산공업학교의 특징을 인정할만한것을 졸작정이다 운운

朝鮮協同油脂 三陟工場入火式

【春川】조선협동유지삼척공장은 작년부터 기공하야 공사를속진시키고잇든중 요지음 준공되고 기계장치도 완비되여 오는오일에 입회식을 거행하게되엿다 이로써 경화유(硬化油)공장으로서는 전국최대공장으로 원유(原油)여산 이백사십만관(罐)을 제조하리라하며 이외에 리스링 구리세링 비누등도 부생산품으로 다수제조하리라한다

七十四萬圓을詐欺

星野一黨釜山法院公判에

【慶南支社發】부산부 대창정사정목 부산매축주식회사 청산인 성야길태랑(星野吉太郞)(..)과동 성야길랑(星野吉郞)(..)외일명에 대한 유가증권 허위기입 행사사 기사건은 부산지방법원 제이예심계 다전(多田)예심판사가 심리중이던바 지난일일 예심이종결 유죄로결정되여 즉일 동법원합의부 공판에 회부하얏다 사건내용은 성야는 대정육년팔월이십칠일 부산부 대창정부 산매축회사 청산인에 선임되야 이래 동회사를 대표하야 청산사무를 처리하여오고 피고인 성야길랑은 대정십사년이래 동회사대중역 사무에 종사하고잇 터비 소화팔년 팔월십일일 동경 서택공작(西澤公作)과 공모하야 충주군 앙성면(忠州郡仰城面)소재의 금광소(金鑛)소재 팔십만여평의 광구권을 대금 삼십삼만원에 경남사천군 사천면(泗川面)소재 삼천백오십평 산하순성(山下順成)사로부터 만천구백오십원의 약속수형 하순(下順平)으로부터 매수하얏스나 그경영자금에 궁한나머지 피고인 양명은 공모하야 자기들의안해 의친정면인 동경 대창희팔랑(大倉喜八郞)(大倉喜一郞)씨의 조력으로 희칠랑(喜七郞)(..)씨가 대창조합(大倉組)상당히 신용잇는것을기회로 대창희팔랑씨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야 다른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액면칠십사만천구백오십원의 약속수형 백팔십통을 진출(振出)하야 판구인태랑(關口寅太郞)등 금융중개자를통하야 오십여명에게 대하야마치정기수형의 이서는 진정히정립한것처럼 꾸미여 교부 행사하야 면취한것이라고한다 그런데。전기피고는 형사문제가이러남을전후하야 동범원민사부에 수형금대금청구사만여원의청구소송을 당하고잇는중으로 민사와더부러 흥미를끌고잇다

電化되는永興農村

憂慮되던送電量增加도決定

開墾事業의支障一掃

【咸興】근년영흥군내에는 양수개간사업이 날노발전된다 함은 누보한바어니와 금년에도 여기의 일천오백여정보 진평의삼백여정보 순령의 사백여정보 덕흥의이백여정보 합 이천사백여정보의 개답이 되엿는데 한때는 송전량의 부족으로 수리계종래의 송전양으로는 도저히될 수업서 어기수리계 연합회장바창현(朴昌鉉)씨와 주민대표 최석률(崔錫律)씨가 엄마전 함남합동전기회사원산지점에 출장하야 송전회장을 교섭한일도잇섯스나 회사측의 거절로 수포로 귀하얏던바 그후 회사측에서는 고려한바잇서 산업선 확장을결정하고 지난 이십 구일부터삼일간 원산지점장 산내(山內)씨가 개답지대의 실지답사도못마치엇고종래마장으로송전되던것을 억기면 와후리(瓦滸里)에 칠만여원을드려 이만이천볼트의 변전소를설치하고 삼천삼백볼트의 전량을 각수리계에 배송하리라 고하니 수리계및영농자의 두통거리는 일소되엿다고하며 금반의송전대확장으로 금후 군내산업상 전기의사용은 다소편리하게되엿다고하며 박금 이쾌보를 문맹을깨치기 위하야 고장공화장내에서 지난이십육일에 개교식을열어 명년이월삼순까지 칠십일간 강당(講堂)에서 칠십명을 소학교훈도박용보(朴用寶)의기봉(奇鳳)장동헌(張東憲)씨가 에오어린학생의 씨달임을 가리지안코 밤에도 쉬새업시 교수에열심하야 촌중교육에 종사한다고하는데 배우고자하는 부인들은만히가하기를 기대한다

입하는자도만타고하며 관헌측에서도 경찰의 이선지사는 주민과진행하리라한다 가라 산금 사업등 신설계획을 확장하려 속속 장려선도 경부에서 보조하여가 섭하다고하니 군내 산금업에도 박차를 가하리라고한다

婦人國語夜學開始

【吉州】운산군 우면 (雲山郡..面) 고장에서는 본도방침에

三人組拳銃强盜

警官을射殺逃走

歲暮압두고奉天에서

【奉天】세말을 압두고 소란해진 국제도시 봉천=지난십일일 오후팔시십분경 봉천시 대서판대가 홍화가(大西關大街興化街)방에 세명의 권총강도가 침입하야 집사람을 협박한후 현금일백오십원과 금반지까지 사십여원짜리한개와털오ㅣ바ㅣ 핸드빽등을 강탈도주하엿다 급보를 접한 소판봉천남시장서(南市場署)에서는 즉시 서원을 비상소집하야 범인수사를 개시하엿는데 동일시오십분경 남시장서 마로만(馬路灣)파출소 송양호경사(松陽浩警士)가 일신원로(十一緯路)상으로마차를 타고 천대전로(千代田通)으로 달려가는 세명을발견하고 불심심문을하려한즉 그중의한명은 경사에게 권총을란사하여 살해하고는 도주하는것을 남시장서 원과 대회서원이 협력하여 대(奉大)부근에서 겨우허명만체포하고 남어지두명은 아직오리무중이라고한다

만사 여러가지 의심을 둔 박 원사 백가 무상 주석 이 엇다

全南海苔檢査所

內地移轉은當分中止

【全南支社發】전남해태는 이미 수년전에 동경만생산의 천조태(淺草苔)를 압도하야 동양에서 제일위를 점령한이래 전남해태가 내지각시장에잇서 대환영을 박게된것으로 전남해태의 대부분의 소비지인 내지에다 측접검사소를 두기로하엿는데 지금까지 전남내에는 검사소를부터 서는 여러가지 해태검사가 맛난후 시일이만히걸려서 식미나 망탈등이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손실되는것이만허서 생산자측에서 전기와가티 해태검사소를 내지로 이전하게되엿슴으로 도내 해태를 지금까지 취급해

照明彈

◇ 명용구하 의정부(議政府)金 (..)씨는 수일전경성식은(殖銀)에서 소절수로 돈을 차저가지고가보즉 천원이더왓스므로곳 전화로통지반환

◇ 이 돈을바든 식은점원나리님뜻이 기뻐귀행

◇ 기실혀 넘지 사례금한푼도밧업섯타고 보는사람들이 도리어섭섭하게생각한나고 (淸州)

滿洲語講習會

【江西】본군강서지국주최로 만주국어강습회를 개최한다함은 이미보지를 통하야 보도한바 잇거니와 시기가시기니만치 이보

遮湖港修築內定

今月中으로認可?

【咸南支社發】지금주민들의 열성이 결과를지어서 공사비오십팔만원도 사담키로되야 인가신청중에잇던차호(遮湖)축항은 신청한지 팔개월이넘도록 아직까지 인가가안나와서 주민들이 실망하며 속히허가잇선을 하야주기를 함남도에 진정하야왓는데이에대하야 함남도산전(山田)토목과장은 다음파가튼 기쁜소식을 전한다

이수축안은 도당국에서도 힘것 지지하야왓는데 처음에는내압(耐壓)시험에 설계와가튼 결과를 엇지못하야 재차설계를변경하얏고 그다음에는 금년도에와서 정어리의 대풍획으로 주민이 그러한 거액을지출할수잇슬 여부가의문이되야 그허가를 주저하야 이가티지연된것이 며 인제와서는 아무거첨이엄스므로 불일내로 곳인가가될줄안다 그러타는 중앙부측의 소식을들엇다 느저도이달안으로는 확신한다는 것을 언명하얏다

鈴木少佐慰靈祭

【春川】춘천중화 배속장교로잇던 영목(鈴木)소좌는 응소되야 용약출정하야 ○○에서 전사하게되야 춘천읍에서는 씨의석일을 애도하는의미에서 지난십일

人夫慘死

洛東江鐵橋架橋中

【慶南】경부선낙동강철교가설공사는 금년팔월부터 공사를 속행하고 매일기술자를 수십명씩 채용하여 작업을계속중이라는데 작업중 부상자는 거의매일속출하야 기술자의 불안을느끼는일이 엿섯는데 금월초하로날오후 -시에 무지개다리우에서 일을하다가실수하야떨어져서두개골이 원을계획하는 비상시국인요청에 바로할 남본원에서 소대장 출구할것이며 인한 신입구 인의 있 엿다 있 로 인하야 ...

黃海水組區擴張

南大池를編入코着工

【延安】수년전의 지역사를가지고 부근주민에게 만흔희망을끼처주던 연안남대지를 황해수리조합(黃海水利組合)에서 무상양여운동을하야 소화십이년말경 신상의일부로 대부인가가되여 잇다는 이미 보도한바이지만 아동들은 양여를바든 남대지 이용권에의하야 조합원의 합대지구역에편입케하기위하야 첨 피해민에게 어여를주어 금사업구 그대로두고 그외에 도지개랑사업을 실시하야 수미증산계획을 세워 작년일월부터 오전삼시에 완공된 나 그화장공사 기공식을 행하고 이여서 당초한 이후 연안부 남대지에서 설치하 거 사회하였다 고한다

密航푸로ㅣ커取調

【慶南支社發】숙출하는 밀항부로ㅣ커ㅣ부산수상경찰서에서는 지난 이일 복강현 문사시 백목기섬(福岡縣門司市白木崎)이정목 중도(中島)모의방에 잠복중인 부산부 수정정축선의 전파인범 김재판(金在寬)(..)외두명을 체포해다 지금 엄중취조중인데 전기 김재판동 삼명은 서로공모한후 도지사의 허가업시 지난·월십일일부터 부산부제일잔교및 대신정 초장정 진주군하(晉州郡下)등 각지로 도라다니며 일본내지로가면 만흔돈을 벌수잇다고 감언리설로노동자 팔십오명을 모집해가지고 시월팔일 오전 네시경 동래군 사하면 감천리(東萊郡沙下面甘川里)에서 밀항하려다가 잡힌것이라 한다

大川防火宣傳

【保寧】보령군대천면에서는 지난 일일에 면직원전부와 기성소방조원이 출동하야 전시내일원으로 기행렬을 거행한후 오후한시부터 동네마다 시설점부 대천서에서는 적임을 출동으로 면내직원(火災)조사를 실행하

新曆實施通牒

【全北支社發】전북도 당국에서는 구력과 양력이중을 폐지하고 적극 시장 재시일을도 오래전부터 양력으로 시행하야 나려왓거니와 금년부터는 용년양력을 전부 양력으로 지행하도록 도내각보통교장에게 통첩을발하엿다고한다

兩失한處女最後

사랑과名譽일코産苦中에飮毒

【咸南支社發】 신성하여야할교회에 다니는 처녀가 약혼한이외의 남자와 불의의관계를 매저가지고 그들의의 씨를 나오려고병원에 입원하고잇든중에 절명해버린 비극이 인 번도에 못이져서 자살ㅡ지난 삼일일 오전영시 함흥부내모 병원에 입원하고잇든 한주군주 리면 개동리(朱南面..里)김모(金某)의 장녀 봉모(鳳..)(..)이라는 처녀는 어려애를 나으려 고 신고를하든한편 『칼모친』을 먹고서죽어버렷다

이처녀는 본래부터 기독교의 독신자로서 작년이월경에 교회목사의 소개로 함흥부내 모진자의아들김모(金某)(..)와 약혼까지하야 그들은 행복하고섯스러운전도를 축복바더왓다고한다 그러던것이 이처녀가 그해가을부터 교회를 다니는동에우연히 흥상(興上)에 잇는 역시신자 윤모(尹某)라는 청년과 아지못하는사이에 사랑의 사이가되야 둘의정은 점점기퍼서 드디어임신의 징후까지보게되엿다 『일편 이소문을들은약혼자는이러한부정한 처녀와는 혼인할수업다는것으로 파혼까지하야와서 이러는동안 연애하던남자의사랑도 어느사이에 식어버렷다고한다

도남 보게되자 누구나 고대하는 든드시 볼너드려 정원에초파를 보게되여 조리측에서는 감사하야 마지안코나 한가지 유감된것은 장소관계로 인원을제한하는 만아닌니다 전부수용치 못한것이 천도하나 정기수 장소건일 등록 예정대로 지난일일 본궁지국에 서 개강식을 거행하엿다 그런데 식순에따라 『황거요배』를하

고 황국신민서사를제창하고 국 가합창등이 잇섯고 본부장기지 국장 김병오(金炳..)씨로부터회의 석사가 잇슨다음 동업통 아일보 지국장 리오구(李..)(..)의 씨로부터 본강습소가의을 축독 하야 일반에게 알리엿다 그리 고 본회강사 박○○(朴..)씨로부터 아프로 수강시에 주의 사항이잇섯다

平壤택시會社案

一日附로財務局同意

【平南支社發】비상시국인오늘에 잇서 절약의 국책에 순응하야 『까소링』 평양부내십삼 『택시ㅣ』업자가평남도당국의 알선으로 자본금삼십만원 전액불입 평양자동차주식회사를 창설하기로되엿다 함은 기보하얏거니와 얼마전평남도지사로부터 재무국에 대하야 양도허가의자금조정법에의한 동의신청을 제출하엿든바 일일부로 재무국의동의가잇섯다한다

長篇小說

林巨正

洪碧初 作 金熊超 畵 【185】

평산쌈 (二六)

서림이는 최서방의집이 전날 한온이의 큰집사람뒤 납작한초가로 알고 차저가보즉 뚜바게 그집에 당든사람이 들어잇섯다 이달 초생에 수표교 천변으로 들어잇든사람의 말이 최서방은 이사가다고하야 이사간집 좌향을 캐여물어서 대강 짐작한뒤 다시 수표교천변으로차저오면서 보낸셈을 보내지안코 그걸두고 이사한게 그 사람이 영리하다더니 영리한갑들 하는게다』 하고 서림이는 속으로 생각하얏다

최서방의 새집은 훌륭한 와가 이엇다 서림이가 문밧게서 주인을 차즈니 최서방이 동저구리바람으로 나오는데 면주 저저구리가 거상에 버서저 보이엇다

『이집을 어떠케 차즈셧소 그 전집으루 가셧습되까』

『그랫소』

『어서 들어오시우』

최서방이 큰방을 두고 큰방머리 조그만방으로 서림이를인도하며

『저방은 되지못한갑 어질더분하게 벌려놔서』

하고 큰방으로도 마저드리지못하는것을 발명할뜻 말하얏다

최서방이 서림이가와서 방에들어와다가 점심을 일으고온다 고 틀우 나가려고하는것을 서림이가 점심 먹고왓스니 그만두고 안즈라고 붓들어안치엇다

『언제 이사를 햇소』

『인제 한열흘밧게 안됏소』

『집이 훌륭하구려』

『주인의수하에 잇는사람이 다저 이 모일저소가 업다구 조용한 들을 내서 이집을 사노쿠날더러 들어드라니 이런 초호집에 든것도 막비 주인의 덕이요』

『남소문안에 집이 여러채라니 그중에서 한채 팔라서 쓰두 조치안소』

『주인 집은 모두 속공됏지요』

『속공이란 집두 여러채랍딋』

『나중에 사출이 나서 죄다 속공되구 말엇소 생각하면 기!』

『내가 이번에 어디 가는길에 가막히우』

드다』

『주심하다신 셈말슴이겟지요 주심이 도무지 잘안돼서 지금 속을 썩이는중이요』

『주심이 못될스면 못됏다구기 별이란두 해달라구말할듯다』

『주심이 당초에 되지안흘것가트면 벌써 거별이라두 햇것지만 될듯될듯한데가 만흐니 까 얼른 수합해서 보내드릴 타구만 생각하구 기별두못햇소 지금두 저방에서 문서쪼각을 벌려노쿠 안젓섯소』

『더러는 주심됏소?』

『녜 주심된것두잇지요』

『그럼 그중에서 두자상목 이 십동만 나를 내주우』

『수표는 안가지구 와지만 엽녀팔구 내주우』

『주인의수표를가지구오섯소?』

『엽녀야 무슨염녀요 그러치만 셈이란건 그리치가 안어서 말슴이요』

『상목이십동은 내가 바든수표를 해주리다』

『언제쯤 쓰시겟소』

『오늘쯧게 해줄수 잇겟소?』

『오늘이요?그건 좀 어렵겟는데 내일 쓰시우』

『내일식전에 쓰게되겟소?』

『오늘밤에 주어모아서 내일식전 쓰시게해보지요』

『나는 팡주땡에 급한일이 잇서서 오늘 꼭 갈텐데 상목 가저갈사람은 내일식전 와서 가저가두록 일러두구 가겟소』

『오는사람이 업외장의 상목 마튼것을 내달라구하거던 의심말구 내주구 수표는 지금 써 노쿠 갈테니 지필을 좀 빌려주우』

『팡주땡에 무슨 급한일이잇기에 이러케 총총이 가실라구 하시우』

『그일은 나중 회로에 와서 이야기하리다』

『언제쯤 회정하시겟소』

『이삼일후에 다시오리다』

서림이는 최서방이 종시 못미더워보이어서 자기의 행지를 이와가티 기이고 이야기하야다 최서방이 술한잔 먹고가라고붓드는것을 서림이는 이삼일후에와서 차저먹을테니 아직 마러두라고 실어온밥도 거절하고최서방집에서 바로 일어서나와다

柳韓洋行發賣藥品 效果本位

人體에絶對必要한 ビタミン榮養素를供給할뿐아니라 結核菌을殺滅하는 有效成分이適當히含有되야 呼吸器를 强化하며 結核豫防에特殊한作用이잇는外에消化機能을活潑케하고 食慾을 增進하며 身體를强壯케하는 再建設的作用이卓越한名藥입니다。
適應症 呼吸器疾患·神經衰弱·貧血症 腺病質·食慾不振·産前産後·榮養障碍·病後恢復期
包裝 小瓶 中瓶 大瓶
再建設的强壯劑
ネオトン
(네오톤)

外塗內治藥
アンチフラミン
(안치후라민)
感冒等으로因하야 肺炎·氣管支炎(特히小兒)의 危險이잇슬때에 アンチフラミン을 바르면 濕布劑보다 藥効가迅速합니다。
또한 神經痛·胸痛·肩臂痛·腰痛等에도 本劑를바르면 卓効가잇는外에 婦女의月經痛에도 下腹部에바르면 疼痛을停止하고 行經을順調롭게합니다。
適應症
肺炎·感冒·肋膜炎·로이마치스 扁桃腺炎·氣管支炎·神經痛·打撲傷·乳房炎·月經痛等
包裝 60瓦 20瓦

各種ビタミン의 綜合的補給은 그相互作用을利用하게되므로 더욱그効力이 優秀하다는것은 現代醫學이 證明한바입니다
本劑는ビタミンA·B·C·D·G의 綜合的滋養劑로서 水飴狀이며 芳香美味하야 老幼를勿論하고榮養補給·發育促進·身體의抵抗力强化等에 特殊한効力이잇는滋養劑입니다。
適應症 榮養不良·貧血症·肺結核·腺病質·産前産後·神經衰弱·食慾減退·病後恢復期等
包裝 三三五瓦
綜合的ビタミン滋養劑
ハリブマルト
(하리부말트)

(오루키몬)
オルキモン
男性强力ホルモン劑
本劑는 輓近의 ホルモン學說에基하야 性機能이旺盛한 雄性動物의 乾燥睪丸實質을 主成分으로하고 性慾亢進作用이잇는 ブロード氏炭酸鐵/カルシウム/等을配給精製한强力男性生殖線ホルモン거기에다 神經强壯及健胃作用이잇는 有效成分劑이므로 生殖線內分泌機能의亢進과全身的 强壯促進作用이 卓越합니다。
適應症 生殖器機能障碍·神經衰弱·精力減退·早漏·性慾減退·遺精·老衰等
包裝 40錠 100錠
(全國有名藥房販賣)

004205